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7007.72 (+113.49)		836.27 (+9.15)
	금리 (연) 4.056 (+0.021)		환율 (원/달러) 1378.35 (-4.95)

‘6000원 시금치’ 못사고 발길 돌려 시장 상인·장보기 손님 모두 ‘한숨’

추석 소비 ‘K자형’ 양극화
백화점 식품관, 100만원 한우 등
고급 식료품 선물 매출 30% 증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청과시장은 추석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제수용 채소를 구매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지만, 상인과 손님 모두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금치 매대 앞에서 멈춰 선 한 손님이 “시금치 한 단에 얼마냐”고 묻자 상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6000원은 받아야 남는다”고 답했다. 손님은 “몇 개 잡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만 원이 넘는다”며 차마 잡어 들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청과 매대를 운영하는 상인은 “올여름 폭염에 잦은 비 때문에 물건 때오는 단가 자체가 너무 올라 손님한테 가격 부르기가 겁난다”고 토로했다. 50대 주부는 “마트나 시장이나 비싼 건 마찬가지지만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사보려고 청과시장 도소매 매대를 서성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날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50만~100만원대 한우 선물세트와 30만~60만 원대 와인 진열된 매장에는 구매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 몰렸다. 고급 식료품 선물세트 매출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고금리 여파 속에서 저가·할인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상품과 초고가 프리미엄 상품으로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는 ‘K자형 소비 양극화’ 현상이 명절 대목 시장의 지형도마저 완전히 바꿔버렸다. 알파벳 ‘K’자의 갈라지는 두 축처럼 물가 상승과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받는 서민·중산층의 구매력은 아래로 떨어져 ‘초가성비·알뜰 소비’로 내몰리는 반면, 자산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물가에 저항없이 위로 뻗어나가는 ‘프리미엄·고가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구조다.

◆날씨에 환율까지 전방위 물가 압력
올해 추석 물가가 치솟은 데는 이상이

후로 인한 공급 차질과 대외 경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여름 이어진 폭염과 잦은 비로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시금치, 애호박(전년 대비 43% 상승), 무(24%), 도라지(23%) 등 채소류 가격이 폭등했다. 대형마트 기준 배 가격도 22.4% 올랐다.

한국물가협회 조사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30만3750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올랐다.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서도 6인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 24만5000원, 대형마트 29만원 선으로 집계되며 가게의 장보기 부담을 입증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 고조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9달러 선을 위협하고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115달러까지 치솟는 등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공식품과 운송비, 외식 물가를 전방위로 자극하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세금 부담 지적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는 총력전에 나섰다. 대형마트는 제수용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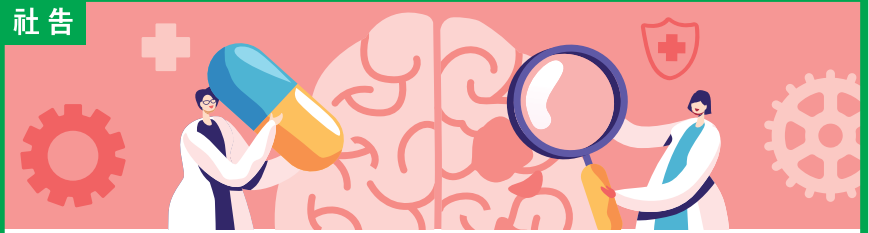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가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

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글로벌 위기 속 ‘신용등급 상향’… 투자자들에 ‘주목’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평가에서 신용등급이 기존 ‘Baa1’에서 ‘A3’로 한 단계 상향됐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 배경에 대해 “SK하이닉스는 향후 12~18개월 동안 높은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와 재무유연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반도체 업황 하강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충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AA’ 신용등급을 받았다. 삼성화재가 받은 AA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수준이다. 삼성화재는 S&P의 신용등급 상향 조치로 개인 보험 고객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 능력을 갖춘 셈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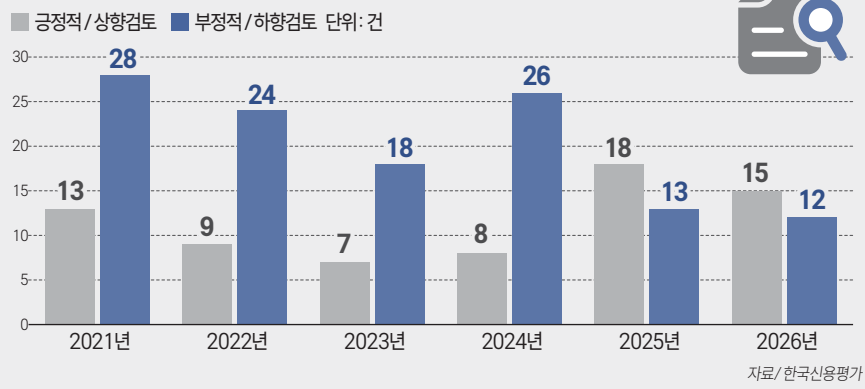
최근 SK하이닉스 등 4곳 신용상향 SK아이이테크놀 등 3곳 상향 전망 “조선·반도체·방산 등 우호적 업황 실적 개선에 신용상향 우위 뚜렷”

‘신용 리스크’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살리기 및 증시 활성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 가운데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려는 글로벌 각국의 긴축 통화정책,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공지능(AI) 속도 조절론 등이 몰아친 시기에 기업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7천회’(코스피 지수 7000) 시대의 선순환 효과 덕이라는 분석도 있다. 증시는 여러 경로로 경제와 기업에 선순환 효과를 낳는다.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와 투자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자는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소비를

신용등급 아웃룩·워치리스트 추이



늘려 내수 시장(기업 판매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은 기업의 실적(수출 확대)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 신용(Credit)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1일 국내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와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8월 이후 신용등급이 상향된 곳은 SK하이닉스(Baa1

→A3), 금호타이어(A→A+), 한화엔진(BBB→BBB+), 삼성화재(AA→AA) 등이다.

등급 전망 가능성이 큰 곳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신용등급 상향 검토 등급 감시대상), SK어드밴스드(안정적→상향검토), SK이노베이션(부정적→안정적) 등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크레딧전략 연구

원은 “조선, 반도체, 방산, 전력기기, 증권 등은 우호적 업황 속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신용등급 상향 우위가 뚜렷하다”며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지위 강화, 자본여력 확충 등도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신용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다. 국내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업의 장기 신용등급 상향배율은 0.79배였다. 상향배율은 신용사가 신용등급을 올린 회사를 등급을 내린 회사로 나눈 수치다. 1배 미만이면 신용등급을 내린 회사가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신용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낮은 이율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계 한 관계자는 “A등급을 받거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대외 신인도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 시 유리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주요 기관들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유리해진다”고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 낮은 자세로 국정 세밀히 다듬을 것”
▲與 “한동훈, 명백한 수사 대상…경찰 즉각 수사·국회 징계 촉구” /사진 뉴시스

▲합참 “서부전선 DMZ서 군 간부 3명 미상 폭발로 부상”
▲與 “조희대, 즉각 재제청 나서 ‘3부’의 상호존중 실천해야”

▲정부, 중수청 출범 앞 청사 현장 점검…청장 인선은 ‘정체’
▲한 총리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이 선택 받아야”…선순환 소비 강조

보험가입·지금 살펴보는 AI 통제체계 등 위험관리 ‘깜깜’

주요 보험사, 심사 등 AI 활용 확대
37곳 중 3곳만 위험관리 절차 공개
보험사 “소비자 보호 절차 갖춰야”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을 보험가입 사전심사와 보험금 지급심사의 보조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AI 활용의 승인 주체와 위험관리 절차를 외부에 공개한 보험사는 생존보험회 정회원 37곳 중 3곳에 머물렀다.

21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기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은 각각 20곳과 17곳이다. 이 가운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자율공시한 보험사는 생보사 3곳과 손보사 3곳 등 6곳이었다.

◆ AI 통제 공개 보험사 3곳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AI 위험관리 거버넌스 관련 내용을 담은 곳은 생보사 2곳과 손보사 1곳 등 3곳이었다. 전체 정회원의 8.1%다.

다만 이 수치는 AI 통제체계의 실제 구축률이 아니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수준을 보여준다. 보험연구원의 사결정기구 설치나 공시 여부만으로 각 보험사의 실질적인 위험관리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는 해당 회사명이 적시되지 않았다. 본지가 DART에 공시된 6개 보고서의 공개 내용을 별도로 대조한 결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가 AI 원칙과 의사결정기구, 위험 분류 및 인적 개입 방침을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담았다.

삼성생명은 지난 6월 1일부터 ‘AI위원회 세칙’과 ‘AI 윤리 및 위험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11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고위험 AI에는 별도의 승인·통제 절차를 적용한다. 이용자의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 등 권리 침해 가능성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삼성화재도 AI위원회와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고 고위험 AI를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분류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인간의 개입과 최종 판단을 보장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실제 업무에서는 의료심사 AI가 진단서와의 무기록을 분석해 1차 판단과 보험금 지급심사를 지원하고, AI 광학문자인식

(OCR)이 보상서류 인식과 정보 입력을 돕는다.

한화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가입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사전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자동심사 비중은 85.9%를 기록했고, 처리 시간은 4.7일에서 44분으로 단축됐다. 회사는 인간의 최종 책임과 설명 가능성 등을 담은 ‘책임 있는 AI 9대 원칙’도 공개했다.

미래에셋생명도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도 AI 활용 업무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만으로는 위험 등급별 승인이나 소비자 이의제기·재심 절차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은 상품 추천과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서는 AI 오작동이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사람이 판단을 변경하고 수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인공지능 활용 사실의 고지뿐만 아니라 판단 결과에 대한 설명, 이의제기 및 임직원에 의한 재검토 등 소비자보호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지난 4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슈퍼 신천점에서 롯데슈퍼 직원이 배달 기사에게 주문 상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롯데쇼핑

배달 플랫폼에 인프라 결합 퀵커머스 경쟁 ‘2라운드’

SSM·백화점 서비스 재개 이어져
“결국 상품 구색에서 성패 갈릴 것”

유통업계의 퀵커머스 경쟁이 편의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넘어 백화점까지 확산하고 있다. 과거 자체 배송망 구축에 나섰다가 비용 부담과 수익성 문제로 서비스를 접었던 유통업체들이 최근에는 기존 오프라인 점포와 배달 플랫폼의 배송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퀵커머스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지난 7일부터 전국 170여개 점포에서 쿠팡이츠와 협업해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체 앱을 통해 운영하던 ‘시간 바로배송’을 2023년 2월 중단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퀵커머스 서비스를 재개한 것이다.

롯데슈퍼의 가세로 국내 주요 SSM 4사는 모두 쿠팡이츠 ‘장보기·쇼핑’에 입점하게 됐다. GS더프레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자체 앱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네이버쇼핑 장보기 등 외부 플랫폼과 연계해 퀵커머스를 확대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배달앱과 연계한 퀵커머스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에 입점해 퀵커머스를 운영하는 편의점 매장은 약 2만개에 달한다. 올

해 7~8월 퀵커머스 매출은 CU가 전년 동기 대비 205%, 이마트24가 182%, 세븐일레온이 150%, GS25가 74.9% 증가했다.

최근에는 퀵커머스 경쟁이 백화점으로도 번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8월부터 쿠팡이츠에 전용관을 열고 청량리점과 관악점에서 약 5개월간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의 퀵커머스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백화점은 2021년 현대식품관 투룸을 통해 신선식품을 10~30분 내 배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식당가 음식을 1시간 내 배송하는 ‘바로투룸’도 운영했다.

최근 유통업계의 퀵커머스 진출이 과거와 달랐던 점은 직접 퀵커머스 플랫폼과 배송망을 구축하는 대신 외부 배달 플랫폼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면 별도의 물류센터와 자체 배송망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퀵커머스 경쟁력이 결국 상품 구색에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 동일한 배송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경쟁력이 업체 간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당정 “농지, 투기 수단 악용시 법적 제재”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완책 논의

농지를 시세차익·개발이익 등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위반 행위가 관행적이고 경미하다고 인정받을 시 당국의 조치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실시

중인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일반농업인 불안감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해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사례 등을 포함한 투기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 외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농촌 현실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관행이라고 봤다. 아울러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은행 농지매입 예산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삼성·SK, 中 CXMT 추격 거세진다… 범용 D램 경쟁 격화

CXMT 5세대 D램 양산·신제품 공개
2분기 점유율 9.5%로 빠르게 상승
中 내수 기반 생산 확대·추격 강화

삼성, HBM 집중·범용 외주 확대
SK하이닉스, 1c D램 전환 가속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5세대 D램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범용 D램 시장에서 선두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 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는 가운데 범용 D램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지난 20일 중국 허페이에서 열린 '2026 세계제조업대회'에서 5세대 D램 기술 플랫폼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정을 적용한 24기가비트(Gb) LPDDR5X 신제품 2종도 공개했다.

CXMT는 쿼드러플 패턴링(QTP) 기술을 적용해 메모리 어레이 핵심 구조 간 간격을 11.95나노미터(nm)까지 줄였다.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다이 수도 기존 4세대보다 50%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6세대 D램 '1c LPDDR6'.

/SK하이닉스

CXMT가 범용 D램 시장에서 생산능력과 제품군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HBM을 비롯한 고부가 메모리 후공정에 자체 생산 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DDR5 모듈 조립과 테스트 등 범용 제품의 증산 물량에는 외주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온양 사업장의 후공정 생산 라인을 HBM과 첨단 패키징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기존 DDR5 관련 장비 일부도

협력사의 국내·필리핀 생산거점으로 이관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후공정 생산능력을 HBM 등 고부가 제품에 우선 배치하면서 범용 D램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HBM은 첨단 패키징 공정이 필요한 반면 DDR5 모듈 조립과 테스트는 상대적

으로 외주 활용이 용이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부터 협력사들에 DDR5 모듈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생산라인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6세대(1c) D램으로 제품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고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우시에는 주요 D램 생산거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SK그룹 내 '중국통'으로 꼽히는 서진우 부회장이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겼다. 중국 우시에서 주요 D램 생산거점을 운영하는 만큼 현지 생산과 사업 전략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CXMT의 생산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테크인사이드는 CXMT의 글로벌 D램 웨이퍼 생산 비중이 현재 약 13%에서 향후 2~3년 내 17~18%, 2031년에는 20% 안팎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 기준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9.5%로 전분기 7.6%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CXMT는 지난 7일 차세대 모바일 D램인 LPDDR6 양산도 발표했다. 다만 공정 기술에서는 국내 업체들과 격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6세대(1c) D램을 기반으로 제품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CXMT의 LPDDR6에는 15~16나노급 공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CXMT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 등 내수 고객사를 기반으로 신제품을 빠르게 양산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아직 국내 업체들과 공정 기술 격차가 있는 만큼 범용 D램 생산능력과 미세공정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향후 경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동행노조 선거 돌입 노동부 진정까지 번진 내홍

4개 후보조 등록·28일 개표
선관위 구성·규정 놓고 갈등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 부문 중심 노동조합인 '동행노조'가 차기 위원장 선거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 규정을 놓고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일부 노조 관계자들이 투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차기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을 뽑는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에는 4개 후보조가 등록했으며 마지막 날인 28일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앞서 동행노조의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현 집행부 일부 인사가 조합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출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새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본격화됐다.

선거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동행노조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안과 선거 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두 안건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예정대로 선거를 추진하자 일부 운영위원과 조합원 대표들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선거 절차가 노조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표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위원장 권한대행의 노조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행노조는 지난 18일 전국 지부장의 업무를 중지하고 사무국장과 일부 조합원 대표에게 해임·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앞서 노동부에 선거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정부, 유류세 인하 내달까지 연장

>> 1면 '6000원 시금치...'서 계속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4주 연장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15%, 경유·LPG 25%)를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추석 연휴 나흘(24~27일) 동안 전국 226개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존

재한다. 공공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방식은 단기적인 체감 물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금융 시장에서는 고유가, 고물가에 더해 고환율, 고금리까지 겹치는 '4고(高)'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55조 공급’ 동남권 해양·조선·항공우주 산업에 날개 달다

〈2030년까지〉



①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② 부산 BNK부산은행 본점. BNK금융지주는 BNK부산은행 본점에 위치했다. ③ 지난 7월 3일 개최한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석원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부터)과 전재수 부산광역시 시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④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맨앞줄 오른쪽 일곱번째)과 정영두 김해시 시장(맨앞줄 오른쪽 여덟번째) 및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열린 ‘BNK경남은행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올해 지역과의 협력 확대 논의를 위해 김해시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BNK경남은행·금융위원회

BNK금융

BNK 금융그룹

BNK금융이 지역과의 동반 성장에 중점을 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공급에 속도를 낸다. 해양·조선·항공우주 등 지역 내 전략산업에 자금을 투자하며, 취약계층에 자금을 공급한다.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지역 내 주요 금융기관이란 입지를 공고히하고,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BNK금융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총 55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 건설업, 주택대출, 부동산임대업 등에 공급했던 자금을 제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재배치한다.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통해 동남권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한다.

55조원 가운데 50조원은 생산적 금융, 5조원은 포용적 금융에 배정했다. 특히 올해 20억원의 생산적 금융 목표액을 설정하고 조선·해양발전·항공우주 등 전략산업에 자금을 조기 공급한다.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및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정책 목표에 발맞춰 지역 해양·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포용적 금융은 청년, 일용직,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안점을 둔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의 유망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단순한 여신 공급을 넘어 지역 산업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며 “기업금융, 글로벌금융을 포함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산업과

밀착된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지역 중소·중견기업 육성

BNK금융은 생산적 금융 목표를 ‘지역 경제의 발전이 곧 BNK의 성장’으로 제시했다. 동남권 지역에 거점을 둔 지역금융 그룹이라는 정체성을 공고히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도 확대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반도 지원한다.

먼저, BNK금융은 기업금융분야의 자금공급 체계를 ‘산업금융’ 체계로 재편했다.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임직원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종합 지원

올해 20억 생산적 금융 목표액 설정... 전략 산업에 공급
‘지역 경제 발전이 BNK의 성장’ 목표... 지자체 협력 확대
산업금융 체계 재편하고, ‘부·울·경 기업지원센터’ 신설
지역 청년에 ‘금리 선택형 대출’, 일용직·장기연체자 지원

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부·울·경 기업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기업지원센터는 대출 심사 절차를 최소화해 자금 지원 속도를 개선했고, 경영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계열사 간 연계도 강화한다. BNK금융그룹은 올해 초 지주사에 지속가능금융본부와 생산적금융지원부를 신설했다.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자회사의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금융지원과 정부 정책 연계를 강화해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금융 모델’을 목표로 한다.

BNK금융은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에 속도를 낸다. BNK금융은 지난 7월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벤처투자가 공동 출자한 ‘생산적 금융 전략 펀드’를 출범했다. 전략펀드의 운용은 BNK벤처투자가 맡으며, 조선·해양·항공우주·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BNK금융은 지난 4월 일본 카라보시 금융그룹 및 베트남 탄롱그룹과 ‘스타트업 해외 사업 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들은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해외 진출 솔루션 지원, 네트워킹 및 정보 교환 등 영역에서 협력한다. 참여 기

리 선택형 대출’을 공급한다. 해당 상품은 청년의 생애주기(정착기-성장기-안정기)에 따라 상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포용 금융의 질적 전환’을 추진한다.

부울경 지역에 취임한 타지역 청년에는 외부 기관과 협력한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외부 지역 청년의 정착을 지원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한 대출 상품도 공급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약을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해 활용하는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금리는 최저 연 3.9% 수준의 저금리로 설정해 금리 부담을 낮췄으며, 신용점수 하위 20%의 저신용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도 최소화했다.

장기연체자에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BNK금융은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및 신용정보 등록해제 조치를 실시했다. 취약계층 채무에는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또한 BNK금융과 금융공공기관이 합작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에서는 금융상담, 채무조정, 고용지원까지의 전(全)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함께 만들어갈 모든 이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모두의 일상이 더 자유로워지도록
각자의 가능성이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나가 모두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모두의 도전과 성장 응원

-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패럴림픽 국가대표 및 종목·선수 후원)
- 시각장애인 K리그 AI중계서비스 도입(2026 에디슨 어워즈 수상)

장애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예술가 미술 공모전 개최

재활부터 자립까지 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 재활·학습 보조 기구 지원 및 취업 교육
- 노후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차량지원



내달 아파트 1만6567가구 입주… 공급 가뭄 숨통 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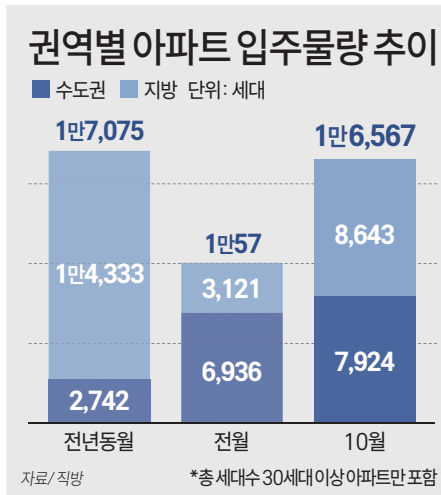
10월 입주물량 전월 대비 65% ↑
수도권 7924세대, 지방 8643세대
지방 물량 66% ‘전남광주’ 집중

오는 10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공급 가뭄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0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6567세대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65%나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924세대, 지방 8643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4% 증가했고, 지방은 3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물량 증가를 이끌었다.

직방 관계자는 “다음달 입주물량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늘었다기보다 특정 지역에 물량이 집중된 영향이 크다”며 “최근



월별 입주물량은 입주 시기를 맞는 지역과 단지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서울 3302세대, 경기 2788세대, 인천 1834세대가 입주한다.

서울은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 2451세대가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밖에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등촌역’ 543세대,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 308세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는 ▲의왕 733세대 ▲오산 730세대

▲안양 458세대 ▲파주 383세대 ▲부천 266세대 ▲시흥 218세대 등 7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검단구 불로동에서 ‘신검단중앙역센트레빌’ 1224세대와 검단호수공원역풍경채아바티’ 610세대 등 총 1834세대다.

지방은 전남광주가 5671세대로 전체 물량의 66%를 차지했다.

장성군 진원면에서는 ‘첨단제일풍경채 A2블록’ 1845세대와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 152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에서도 삼강동 ‘삼각동위파크일곡공원’ 1004세대, 월출동 ‘첨단제일풍경채 A5블록’ 584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충남 776세대 ▲대전 749세대 ▲부산 400세대 ▲대구 299세대 ▲강원 264세대 ▲경남 232세대 ▲울산 158세대 ▲제주 94세대 등이다.

입주물량은 늘었지만 최근 입주율은 하

락세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5%로 전월 대비 8.6%포인트 하락하며 50%대로 내려왔다. 수도권 입주율은 80.8%인 반면 광역시는 55.5%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미입주 사유로는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짧은 기간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시기가 겹치면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실제 입주 상황은 지역별 공급물량과 주택 선호도, 기존 주택 처분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입주물량과 입주율, 지역별 수급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국토부, 수도권 공급 전체 물량 77%
내년 말까지 전국 15만가구 입주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77%인 92만가구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청년 월세지원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문턱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수도권 92만가구 공급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4만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등이다.

건설임대는 공공이 집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고, 전세임대는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해 입주자의 전세를 지원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가구, 수도권 약 10만가구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가 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약 10% 수준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다. 초기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과 향후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델을 도입한다.

◆ 역세권에 넓은 공공임대

새롭게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는 각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내부 구조와 마감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한다. 주요 사업장에는 고양창릉 B-1블록 1594가구, 남양주진접2 A-2블록 342가구 등이 포함됐다.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높인다. 신축 주택의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구조로 설계한다. 1인가구용 주택에는 전용 31㎡에 발코니를 확장해 실제 사용공간을 36㎡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임차료와 주택수선에 더해 공용관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청년 월세지원 확대

미혼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내년 100%로 높인다. 월 소득 기준으로는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최대 220만원까지 인정하던 제도는 사라진다.

지원 연령은 기존 19~34세에서 18~34세로 넓힌다.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상한연령도 최대 3년 연장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4개월을 유지하되 차상위 이하 청년은 48개월로 늘어난다. 청년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청년의 2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cf56@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통인시장 상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추석 맞아 시장 방문

소상공인 금융지원 점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민생현장을 살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최근 전통시장 경기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중인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도 제공했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8월 말부터 은행권이 시범운영 중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제도는 매출, 업종 및 상권분석 등 비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승인, 한도

상향, 금리인하 등 더 많은 혜택을 제공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더 많은 은행들이 참가 예정에 있다.

9월부터 확대 개편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및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감감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경감 3중 세트’에 대한 안내도 제공했다.

추석 연휴 전후의 금융권의 자금공급 확대 계획도 소개했다.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10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등 지속적인 채무조정 방안의 확대도 약속했다.

/안승진 기자

삼성물산, 성수3지구 시공사 선정

최고 72층 2203세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성수2가1동 일대에 최고 72층 규모의 총 11개동, 2203세대와 업무·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공사비는 약 1조 8275억원 규모다.

성수3지구는 한강과 서울숲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은 물론 성수동 일대의 문화·상업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입지다. 향

후 성수 한강변의 주거 수준과 도시 경관을 새롭게 바꿀 대표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레비트 성수(RAEMIAN REVIRSEON GSU)’를 제안했다. 레비트는 절대적 가치의 영역을 의미하는 스웨덴어다. 정제된 대청과 균형을 통해 성수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물산은 영국의 글로벌 건축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Foster+Partners)’와 협업해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프리미엄 조경 등 혁신 제안을 마련했다.

/안상미 기자

한화생명, 치매 전문성 갖춘 설계사 양성

세브란스와 전문교육 개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한화피플라이프 등 자회사형 GA는 물론, 자사와 제휴를 맺은 모든 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치매 케어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사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세브란스병원은 치매 예방·관리, 한화생명은 치매보험과 간병 리스크 컨설팅 교육을 각각 맡는다.

세브란스병원이 진행하는 파트는 김

어수 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이 맡았다. ▲치매 바로 알기 ▲인지기능 모니터링 자가검사 활용법 ▲치매 예방 가이드 등 실질적인 치매 예방·관리 노하우를 전달한다.

한화생명이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치매보험 구조와 경제적 대비 ▲간병 리스크 및 치매보험 컨설팅 등 실무 중심의 재무 교육이 이뤄진다.

치매는 진행 과정이 복잡해 고객 스스로 필요한 간병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설계사는 치매를 더 깊게 이해해, 고객 상황에 맞는 간병

대비책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화생명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춰 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은 더욱 신뢰도 높은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종호 한화생명 마케팅실장은 “세브란스병원의 의학적 전문성과 한화생명의 금융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치매 상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며 “한화생명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치매 관련 상담에서 한층 전문적인 설명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 신뢰와 영업 경쟁력을 함께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광화문·강남·여의도 그리고 마곡의 이유

마곡도시개발지구 복합용지
서울 4대 중심업무지구 마곡이 다시 열린다

완성형 사업지구 광화문, 여의도, 강남에 이어 대기업·상업·의료·공공시설을 모두 갖춘 서울 4대 중심업무지구	최적의 입지 조건 올림픽대로 직접 노출 5·9호선·김포공항 인접 서울&세계로 연결되는 곳	잠재가치 대비 저렴한 공급가 광화문, 여의도, 강남의 가치를 담고 가격은 저렴하게	최대 효율로 끌어올린 토지조건 건폐율 최대 60% 용적률 최대 350%
---	--	--	--

마곡 복합용지 분양 공고 시작, 기업의 새로운 도약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 분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 마감기한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2026.10.20(화) 17시

분양문의

1600-3456 | 02-3410-7376 | 02-3410-7377
(SH 분양부)

입주가능여부문의

02-2088-2649 | 02-2088-2637 | 02-2088-2519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김승원·용혜인 낙마 충격… 與 ‘개헌·민생’ 전열 재정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단장 ‘개헌추진단’ 출범
“5·18 운동, 부마항쟁 헌법에 수록
대통령 중임제 국민공감 논의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충격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과 민생을 띄우며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21일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한 대로 논의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 TV 토론에서도 보셨지만, 5·18 (정신)을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 또는 개헌이 우리 국경과제 1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태년의 원을 단장으로 하는 개헌추진단을 전날(20일) 출범시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표는 “(개헌 관련)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5·18과 부마항쟁 등을 넣는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정치적 공감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가령 이진숙 씨 같은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이야기글 하는 분들은 이것은 헌법과 국민 공감대의 틀 밖에 있다는 것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권력 구조에 대한 것은 국민들의 이제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대통령 중임제, 가령 4년 중임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데 일각에서 자꾸 없는 것을만 들어내서 내각제 개헌 등은 전혀 적어도 당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는

민주화, 산업화를 지나서 품격 있는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헌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 그것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권을 높이는 것, 그 품격 사회 품격 있는 기본 사회 그것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을 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개헌의 타임라인을 두고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의 생각은 총선과도 거리를 최대한 둔, 총선에서부터 1년 전,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 시기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추진 외에 민주당은 ‘현장’ 민생 행보를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새벽 서울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를 방문한 일화를 설명하며 “이제는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메가TF 12개 (구성이) 끝났고 의원들이 각자 뛰는 미니 TF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뛰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용·김 낙마에 책임 강훈식 사의표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2기 개각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는 등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성기흥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 실장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수차례 말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중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강 실장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한 만큼, 이 대통령이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실장의 거취 결단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때문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자, 그러나 용 전 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장관 겸직 의사를, 김 전 후보자는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면서 강 실장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이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당일 강 실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 3실장 체제는 당분간 비상대행 체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면서, 이번주는 3실장이 모두 부재 상황이 됐다.

/서예진 기자

얼굴 맞댄 ‘추·석’… “지방세율 인상” “균형점 찾을 것”

(추미애·김민석)

최고위원회서 ‘신경전’
추 “지방소비세율 40.3%로 인상”
김, ‘경기도 설명의무 부족’ 지적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비판’·‘고액 정치 컨설팅’·‘DMZ 영화제 예산 삭감’ 등 여러 이슈를 두고 충돌을 벌여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얼굴을 맞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광역지방정부 배분 등을 요청했고, 김 대표는 논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최근 자주 충돌한 바 있는 두 사람의 대면에 이목을 집중했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임명하자 “한동훈과 한 배를 탄 사람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인사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높다고 저는 느꼈다”라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같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 지사가 지난 지선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 씨의 정치 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두고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의 적정성은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추 지사 측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경기도는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선 7·8기 전 경기도지사도 해당 업체의 전

신 업체와 선거컨설팅 계약을 했다”며 “경기도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고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해 선거 업무를 치르는 것은 자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과 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면했다.

추미애 지사는 최고위 회의에서 올해 경기도 예산안 중 상당수가 1~9월 예산만 편성돼 있어서 10~12월 예산이 비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3%로 인상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 ▲담배세 지방교육세를 소분방으로 전환 등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최고위 후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의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 사업에 돈을 쓰고 나면 국가 매칭이 됐든, 도 자체 사업이 됐든, 나머지 여력이 없다”며 “(하지만) 세입은 과거 설계된 그대로 부동산 세수에 의존하고 있다. 취득세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대표는 두 사람이 최근 논쟁을 벌였던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예산 삭감’ 논란을 언급하며 “도와 당의 설명의무가 잘 정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영화제의 방만 운영 상태를 지적하며 예산을 축소하자 영화제 측은 이제 맞춰 당초 공지했던 상급과 프로그램도 줄이거냐 없앴다. 김 대표는 이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며 ‘경기도의 설명 의무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美 출국길

5박7일 일정 美·멕시코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21일부터 5박 7일간 미국·멕시코 순방을 떠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7일까지의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뒤 귀국한다”고 전했다.

우선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

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엔 한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할과 글로벌 기여 의지를 국제 무대에 알릴 방침이다. 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국제적

차원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 정상으로서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원유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와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

靑 신임 대변인에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김성완 시사평론가(사진)를 임명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대변인은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김 대변인은 미디어오늘 기자 출신으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시사평론가로 활동해왔다.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지난 4월 전은수 당시 대변인(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뒤 공석이였다. 청와대 대변인단은 5개월간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안귀령 부대변인 2인 체제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김 대변인 임명으로 ‘3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서예진 기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플렉트그룹 HVAC 생산라인 ‘첫 삽’

〈냉난방공조〉

노태문 DX부문 대표 등 착공식 참석
약 2400억 투자… 2028년 가동 목표
광주사업장 첨단제조거점 육성 계획

삼성전자가 광주에 2400억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냉각·공조 장비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지난해 15억유로에 인수한 플렉트그룹의 생산망을 한국까지 확대하며 빠르게 커지는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사업장에서 플렉트그룹 냉난방공조(HVAC) 생산라인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대표이사 사장과 토비아스 케텔레 플렉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 제3캠퍼스에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1800㎡(약 6600평)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2028년 초 가동이 목표다. 플렉트그룹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운영해 온 14개 생산거점에 이은 15번째 글로벌 생산기지다.

광주 생산라인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배터리 공장, 대형 상업시설에 들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오룡동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3캠퍼스 신공장 부지에서 삼성전자-플렉트그룹코리아 광주공장 착공식에 참여한 내빈들이 시삽식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비아스 케텔레(Tobias Ketterle) 플렉트그룹 CFO,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대표이사 사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

어가는 냉각·중앙공조 장비를 생산한다. 냉각수 분배장치(CDU)를 비롯해 팬 윌 유닛(FWU), 컴퓨터를 공기 처리 장치(CRAH), 대형 건축물용 공기조화기(AHU)가 주요 제품이다.

특히 CDU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수요가 커지는 액체 냉각 시스템의 핵심 장비다. 건물의 냉방 설비인 질러와 서버를 직접 식하는 콜드 플레이트 사이에서 냉각수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한다. 고성능 AI 서버의 발열량이 커지면서 기존 공기

냉각을 보완하는 액체 냉각 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는 공조 수요가 있다.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냉각 설비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에 활용되는 고성능 서버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소모가 큰 고성능 서버가 늘수록 발생하는 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냉각 설비도 더 필요해진다.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15억 유로를 들여 플렉트그룹을 인수하며 대형 중앙공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100년 이상 공조 사업을 해온 플렉트그룹은 데이터센터와 산업시설 등 대형 시설용 중앙공조에 강점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플렉트그룹의 중앙공조

기술에 기업간거래(B2B) 통합 제어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 등을 결합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30년 글로벌 HVAC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생산기지도 늘리고 있다. 플렉트그룹은 지난달 인도 마하리슈트라주 푸네에 연간 최대 약 6500대의 공조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열었다.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데이터센터와 산업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광주 생산라인은 한국과 동아시아 수요를 맡는다.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1989년 사업장 설립 이후 37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AI 가전과 HVAC를 함께 생산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플렉트그룹 신규 생산라인 착공은 회사의 핵심 성장동력인 HVAC 사업의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사업장을 AI 가전과 차세대 HVAC 솔루션을 함께 생산하는 첨단 제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최태원 “AI와 사회적 가치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성장 있어”

〈대한상의 회장〉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AI로 복잡한 사회문제 해법 모색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구축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AI)으로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고 해결 성과에 보상을 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최사에서 “AI와 사회적 가치가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성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이 더뎠다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기업이 이익을 내 세금을 부담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AI로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 복잡한 사회문제의 원인과 연관성을 분석하고 비용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 회장은 “고령화 자체보다 고령화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일이 어렵다”며 “AI를 활용해 문제가 어떻게 형성됐고 다른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분석한 뒤 해결 순서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분석한 결과를 실제 해결로 이어

가는 역할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는 현상을 알려줄 수 있지만 문제를 치유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에 다가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해 보상과 투자로 연결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해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성과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사례로 들었다.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금액으로 측정해 보상한 결과 참여 기업 470여곳이 5400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했으며 보상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도 약 35% 성장했다.

그는 “성과를 측정하니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며 “기업이 벌어들인 돈만 셀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도 금액으로 환산해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를 함께 측정하면 기업은 돈을 벌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리더스서밋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AI를 활용한 통계, AI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자본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과 정부, 금융, 사회적 경제 영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각자가 보유한 경험과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함께 모여 더 큰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문제를 넘어 해결로’를 주제로 22일까지 열린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르게다꿈’ 캠페인 전개

LGE닷컴 대국민 인지도 제고

LG전자가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 LGE닷컴에 새로운 광고 캠페인 ‘르게다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지난 18일 ‘르게다꿈’ 캠페인을 운에어했다고 21일 밝혔다. 르게다꿈은 LGE닷컴을 고객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영문 ‘L-G-E-dot-C-O-M’을 색다르게 읽어 표현한 이름이다.

LGE닷컴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광고 캠페인으로, 캠페인 영상에서는 남모르게, 남다르게, 올바르게 살기 위한 파인 리빙 플랫폼(Fine Living Platform) 르게다꿈을 부드럽고 나직한 톤으로 반복 소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 강조하는 LGE닷컴의 차별화 포인트는 고객에게 ▲나만 알고 싶은 가전 셀렉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한정판과 한정 혜택 ▲가전과 가구의 완성도 높은 페어링을 제안, 감도 높은 공간을 완성시켜주는 파인 리빙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캠페인 운에어에 맞춰 LGE닷컴에서는 ‘남다르게 세일’이 펼쳐진다. 내달 18일까지 ‘남다르게 100만원 가전 쿠폰팩’을 가입 회원 모두에게 제공하며, 가전 외 가구, 조명, 인테리어 소품 등 홈스타일 제품은 첫 구매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전·가구 특가전도 총 9회에 걸쳐 실시한다. ‘남모르게! 위클리 추천 세일’, ‘남다르게 릴레이 브랜드 워크’ 등을 통해 가전 제품 약 170종과 90여 개 홈스타일 브랜드 제품을 최대 70% 특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LGE닷컴 내에서 ‘르게 미션’ 경품 이벤트도 열리며, LGE닷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르게다꿈 챌린지’도 진행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큐셀-포스코, 영농형태양광 산업 생태계 조성 ‘맞손’

국내 기업 ‘신토불이 얼라이언스’ 구성

한화큐셀과 포스코가 영농형태양광 전용 모듈과 하부 구조물을 공동 개발하고 금융·시공·전력 판매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지난 17일 포스코와 국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과 하부 구조물 패키지를 공동으로 개발

해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신토불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금융과 기자재, 시공, 전력 판매까지 연계한 통합 솔루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같은 농지에서 병행하는 방식이다. 모듈의 배치와 각도를 조절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확보하면서 남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가에 추가 수익을 제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동안 국내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사용 기간 제약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다. 통상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를 기존 농지법에 따라 8년 만에 철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제정·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허가기간이 최장 23년으로 늘어나면서 장기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한화큐셀과 포스코는 관련 법 시행에 맞춰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화큐셀은 충북 진천공장에서 고효율 영농형태양광 전용 모듈을 생산해 공급한다. 태양광 사업 경험과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공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연계하고 발전소 준공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과의 전력구매계약(PPA) 중개도 지원한다. 실시간 전력시장 입찰을 비롯한 전력 판매 솔루션도 제공한다.

포스코는 토지 부식에 강하고 국내 영농 환경에 적합한 하부 구조물 자체를 공급한다. 농작물과 농지를 보호하면서 영농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물을 개발해 국내 영농형태양광 구조물의 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첨단산업 투자 막는 규제 걷어내자... 한경협, 41건 개선 건의

반도체 분야 도로·용수 등 확충 요구
배터리 미공제 세액 직접환급 제안
로봇 원본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요청
대기업까지 AI 컴퓨팅 자원 개방 촉구
미래차·고효율 설비 세액공제 확대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배터리·로봇·미래차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첨단산업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만큼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세제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개방까지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경협은 21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터리 4건, 로봇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건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고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다. 반도체 분야는 생산시설 투자에 맞춰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

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핵심이다. 한경협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국지도 57호선 개량사업의 고시 일정을 앞당기고,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국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전력 조달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구

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공급망에 무탄소전력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전 등 무탄소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하고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탄소전력 직접구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터리 업계에는 대규모 선행 투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지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자 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즉시 활용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미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와 공동 ESS 평가시설 구축도 요구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 확보가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한 실증구역에서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보유한 AI 컴퓨팅 자원의 이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한경협은 미래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와 에너지 고효율 설비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국산 AI 기반모델을 탑재한 가전의 보급·공공수요 지원도 건의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조현준 “HVDC로 글로벌 전력망 시장 공략”

(효성그룹 회장)

2GW급 대용량 기술로 국산화 속도
한전 실증사업 밸브·제어기 분야 참여
美 빅테크 공급 등 신규수주 9.3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이 초고압 직류송전(HVDC)을 미래 전력망 사업의 핵심 기술로 삼고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발전단지와 주요 전력 수요처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장거리·대용량 송전에 유리한 HVDC가 주목받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이러한 시장 변화를 내다보고 HVDC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왔다. 효성중공업은 2012년 제주 20메가와트(MW)급 전압형 HVDC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컨버터 밸브와 제어시스템 등



200MW급 주요 설비를 자체 개발해 실제 전력망에 적용했다. 현재는 이를 2기가와트(GW)급 대용량 기술로 확대하고 있다.

기술 개발 성과는 대규모 전력망 실증으로 이어졌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0일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대용량 전압형 HVDC 국산화 및 실증사업’의 밸브·제어기 분야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기자재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은 세계 HVDC 송전 시장이 2025년 156억2000만달러(약 21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7.2% 성장해 2030년 220억7000만달러(약 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효성중공업은 HVDC를 비롯해 초고압 변압기·차단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스테이션 등 전력망 설비를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2020년 인수한 테네시주 맵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현지 생산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초고압변압기 공급계약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지난 8월까지 약 9조3000억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유럽에서는 HVDC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망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력산업 학술·전시 행사 ‘시그레(CIGRE) 2026’에 참가해 독자 개발한 전압형 HVDC와 차세대 전력망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사와의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진공, K-패션 16개사 日 판로 확대 지원

TGC 참가 4개사 무대 구성·영상 제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중소패션 브랜드의 일본 시장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19일 K-패션 해외(일본) 유통망 공동진출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제43회 마이니치 도쿄 걸즈 컬렉션(TGC) 2026 가을·겨울’ 참가를 지원하고, 전일부터 도쿄 오모테산도에서 팝업스토어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TGC는 200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대표 패션 행사로, 올해 현장 관람객 1만8000여 명과 온라인 생중계 누적 시청자 약 470만 명이 쇼를 감상했다.

TGC에는 ▲밀로아카이브 ▲히에타(hieta) ▲인사일런스 우먼(INSILENCE WOMEN) ▲넛포너드(NOT4NERD) 등 4개사가 참여했다. 중진공은 참가비를 포함해 영상 제작, 무대 구성 컨설팅 등을



지난 2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팝업스토어 ‘K-클로짓 바이 중진공 X 누구’ 현장 풍경.

지원했다.

중진공은 일본 온라인 패션 유통 플랫폼 ‘누구(NUGU)’와 함께 다음 달 1일까지 팝업스토어 ‘K-클로짓 바이 중진공 X 누구(K-CLOSET by KOSME X NUGU)’도 오픈한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물류 특화 피지컬AI 개발

CJ대한통운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 리얼월드와 함께 물류 산업에 최적화된 피지컬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리얼월드 본사에서 리얼월드와 물류 특화 피지컬AI 전략적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리얼월드 에 지분을 투자하며 전략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협력을 기점으로 단순 투자를 넘어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피지컬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사는 먼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공동 개발에 나선다. RFM은 로봇이 시각·언어·음성·센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해 판단,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AI 모델이다.

/김승호 기자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환급행사



김 승 호 역

연장클릭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과일 5만 원 어치를 샀다. 물론 휴대폰속에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다. 평소 할인율이 7%였던 온누리상품권은 추석을 맞아 10%까지 혜택을 줘 더욱 알뜰하게 쓸 수 있었다.

마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열렸다. 환급행사는 과일·야채 등 농축산물과 수산물 두 종류로 나뉜다.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이나 2만원을 종이로 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각각 지원한다.

그런데 지류 상품권을 돌려받는 과정이 참 지난하다. 가게에서 영수증을 받아 시장에 있는 상인회 등 지정된 사무실로 가야한다. 지자가 장을 본 서울 도봉구 도개비시장에 있는 사무실엔 벌써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은 농축산물, 또다른 한쪽은 수산물 줄이다.

관계자가 “물고기 줄은 이쪽이요, 수산물은 이쪽이 서세요”라는 말로 정리하며 분주하다. 줄을 선 사람들도 우왕좌왕한다. 그렇게 10여분을 기다려 사무실로 갔더니 그 안에서도 대기가 필요하다. 마치 투표장 풍경 같다.

8명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고객들에게 영수증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환급해줬다.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부정환급 등의 오류를 막기위해 영수증을 한번, 휴대폰에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정보를 한번, 받아가는 상품권을 한번 총 3번의 사진을 찍는다.

지자의 경우 구입액이 3만4000원 이상에서 6만7000원 미만 사이여서 환급액은 1만원이었다.

이처럼 줄을 서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1만원짜리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추석 같은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으로 국민들의 발길을 유도하기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같은 정부 부처가 예산을 들여 이런 행사를 펼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 환급 과정이 너무 예스러운 것에 마음이 씁쓸했다.

물론 디지털 접근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분명 이와 같은 방식의 환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휴대폰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용 방지하면서도 환급 과정을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를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면서 생기는 행정적 낭비는 또 얼마나 큰가. 지자가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여덟집아 세어본 관계자만 15명 가량은 족히 돼 보였다. 이런 풍경이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벌어졌다. 정말 가관이다.

/bada@

한국엔컴퍼니, 장애인 고용서 포용문화 확장

동그라미파트너스 성장 사례 공유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넘어 포용적 조직문화 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 내 다양성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성장 사례를 통해 일자리에서 출발한 포용이 조직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18일 경기성

남시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지식나눔회’를 열고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장애인 고용과 포용적 조직문화와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소통 문화와 포용적인 일터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HR지원파트 김수현 담당자가 발표를 맡았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2015년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양성운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크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K-게임 신작 체험에 대기 120분”… 日 이용자 사로잡았다

막 내린 ‘도쿄게임쇼 2026’

전 세계 53개국·1138개 기업 참가
누적 관람객 25만7642명 집계
TGS 비즈니스 매칭 상담 3673건
엔씨소프트·넥슨 등 신작 공개
서브컬처 등 장르 다변화로 공략

30주년을 맞은 일본 최대 게임 전시회 ‘도쿄게임쇼 2026(TGS 2026)’이 막을 내렸다. 사상 처음 닷새 개최를 준비했지만 태풍으로 마지막 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나흘간 25만여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TGS는 참가 규모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전 세계 53개국·지역에서 1138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했다.

21일 TGS를 주최하는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자바현 마쿠하리 멧세와 TKP 도쿄베이 마쿠하리홀을 찾은 누적 관람객은 25만7642명으로 집계됐다.



도쿄게임쇼 2026.

이는 지난해 26만3101명과 2024년 27만4739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3년 24만3238명보다는 많다. 게임업계 간 비즈니스 교류도 활발했다. ‘TGS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을 통한 상담 건수는 역대 최대인 3673건을 기록했다.

◆30살 TGS, 게임 넘어 IP·팬덤으로
올해 TGS에는 일본 기업 540개사와 해

외 기업 598개사 등 1138개사가 참가해 총 3999개 부스를 꾸렸다. 인디게임 참가사도 292개사에 달했다.

올해 전시장에서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것만큼 캐릭터와 세계관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콘텐츠가 눈에 띄었다. 게임사들은 성우 토크쇼와 코스프레, 스트리머 프로그램, 공연, 사진 촬영 공간, 한정 굿즈 등을 활용했다. 신작을 한번 플레이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를 IP의 장기적인 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다.

서브컬처 장르의 존재감도 두드러졌다. 게임 시연 공간과 코스프레, 굿즈 판매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본 게임사들도 대표 IP를 활용한 공연과 토크쇼, 체험형 콘텐츠 등을 선보였다.

◆K게임 총출동…장르 넓혀 일본 시장 ‘노크’

국내 게임사들도 TGS를 일본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작 시험대로 활용했다.

엔씨소프트는 서브컬처 신작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를 전면에 내세웠다. MMO

RPG로 대표돼 온 기존 포트폴리오를 넘어 새로운 장르로 일본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

넥슨은 ‘파레이돌리아’, 넷마블은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팜인블루’ 등을 공개했다. 스마일게이트도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와 ‘데드 어카운트: 두 개의 푸른 불꽃’을 앞세웠다.

일반관람일에는 엔씨소프트와 넥슨, 스마일게이트 주요 신작 체험존에서 120분 인파의 대기시간이 발생했고, 넷마블은 신작 시연을 위해 준비한 정리권이 오전 중 모두 소진됐다.

이번 TGS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도 일본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점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강정수 엔씨재팬 대표는 기존 MMORPG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장르 다변화를 통해 이용자층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도 일본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꼽으며 현지 이용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5일 TGS’ 태풍에 완주 불발

30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도한 닷새 개최는 태풍으로 완주하지 못했다. CESA는 태풍 25호 북상으로 21일 오후부터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고 대중교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 날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관람객과 참가사, 행사 관계자의 이동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개막한 TGS 2026은 20일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최종 관람객은 역대 최대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마지막 날 일정 전체가 취소된 상황에서 나흘간 25만명 이상이 행사장을 찾았고 비즈니스 상담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0년을 맞은 TGS는 게임 신작을 먼저 ‘해보는’ 전시회에서 IP와 캐릭터를 함께 경험하는 글로벌 게임 축제로 영역을 넓혔다. K게임 역시 새로운 장르와 IP를 앞세워 일본 이용자들의 반응을 확인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T, 차세대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논의

中 총칭 ‘ITU-TSG17’ 국제표준회의의 AI 사이버 보안·디지털 신뢰 등 다뤄

KT가 사이버보안에 활용하는 인공지능(AI) 모델에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하는 국제 표준을 제시했다.

KT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국제표준회의에서 차세대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이끌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총칭에서 열린 ‘ITU-TSG17’ 국제표준회의는 UN 산하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 내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회의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연구기

관의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과 보안 아키텍처, AI 보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KT 정보보안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김창오 상무는 ITU-T SG17 WP3 의장으로 나서 AI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신뢰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논의를 이끌었다. WP3은 신뢰성 확보 및 보안 전략과 협력을 담당하는 분과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ITU-T SG17 의장을 역임한 KT 개인정보보호자문위원회 염흥열 위원장도 글로벌 정보보호 리더십과 국제 표준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협력했다.

KT는 이번 회의에서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을 신규 국제표준 작업 항목으로 제안했다. 김창오 CPO와 염흥열 KT 개인정보보호자문위원장은 기고서를 통해 ▲AI 모델 개발을 위한 사이버 보안 지식 소스 및 데이터 세트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모델 개발 수명주기 전반의 평가 고려사항 ▲지속적인 모델 개선을 위한 권장 사례 등을 언급했다.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지침이 마련되면 표준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AI 기반 보안 솔루션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 확산을 촉진하고 위협 탐지·분석, 대응 역량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선 기자 msjo@



지난 18일 도쿄 해의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유플러스 부스터스 우수 활동자 12명이 참가자들이 이 메타 현지 오피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 U+, 우수 크리에이터와 日 도쿄 탐방

‘유플러스 부스터스’ 활동자의 콘텐츠·플랫폼 경쟁력 강화

LG유플러스가 창작자들의 글로벌 콘텐츠 경험을 지원해 동반 성장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유플러스 부스터스’ 우수 활동자들과 일본 도쿄에서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플러스 부스터스는 LG유플러스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크리에이터가 LG유플러스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뒤, 이용자의 관점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해 각자의 채널에 소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플러스 부스터스 활동자들의 콘텐츠 경쟁력과 글로벌 플랫폼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쿄 일정 중에는 글로벌 빅테크 메타의 현지 오피스를 찾아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워크숍과 글로벌 크리에이터 트렌드 세션에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콘텐츠 기획·제작 방법과 플랫폼 활용 전략, 콘텐츠 확산 방안 등을 다뤘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주목받는 콘텐츠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각자의 크리에이터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제작 노하우를 공유했다.

최신 디바이스를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레이벤 메타 스마트글래스와 퀘스트 등을 체험하며 새로운 디바이스가 콘텐츠의 기획과 촬영, 제작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봤다.

/조민선 기자

SKT, 공공기관 대상 AI 활용 업무혁신 기술 공유

‘그랜데이터 퍼블릭 데이’ 세미나
공공 행정 사례, AI 기술 등 소개

SK텔레콤이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타워에서 공공 분야의 AI·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세미나 ‘그랜데이터 퍼블릭 데이 2026’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데이터를 활용,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고도화와 대민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실무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부·지자체·공사 등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SK텔레콤은 신한카드·KCB·카카오모빌리티·SK브로드밴드와 데이터 사업 협업 얼라이언스 ‘그랜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SK텔레콤·신한카드·KCB가 공공·민간 분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



18일 SK텔레콤 타워에서 ‘그랜데이터 퍼블릭 데이 2026’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로 한 의사결정 자원과 민간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출범시킨 민간 데이터 결합 사업이다.

세미나 1부에서는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공공 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방문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사 행사의 성공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함께 소개된 송과구청 사례에서는 지자체가 소유한 기부채납지 등 토지의 개발 방안을 AI로 분석했다.

2부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기술과 내부 혁신 방향을 다뤘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사례에서는 노코드와 바이트 코딩을 활용해 관광·교통 등 실무 부서가 통신카드 빅데이터를 관할과 절차에 따라 활용하도록 지원한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례를 통해 가명정보와 AI 기반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의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관련 검토가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기술적·운영적 요소를 소개했다.

/조민선 기자

SKB ‘B 티비’, 유료 콘텐츠 20% 할인

오는 27일까지 할인 쿠폰 프로모션

SK브로드밴드가 오는 27일까지 ‘B 티비’ 이용자들에게 유료 콘텐츠 20% 할인 쿠폰을 주는 ‘매일 받는 모두의 할인 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매일 참여하면 할인 쿠폰을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영화 모야나, 토이 스토리5, 사랑의 하추핑: 고래보석의 전설, 오케이 마담2 등 최신작에 사용할 수 있다. 행사대상작을 구매하면 B캐시 충전 금액을 최대 22%까지

추가 적립 받는다.

맞춤형 큐레이션도 강화한다. 특집관 ‘추석의 발견’을 통해 연도별 박스오피스 랭킹, 올해 역주행 영화, 애니메이션 랭킹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동 시간에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모바일 B 티비 맞춤 큐레이션 기능도 강화했다. 셋톱박스나 모바일 B 티비를 연결해 두면 집에서 시청하던 콘텐츠를 귀성·귀경길에도 이어 볼 수 있고, 시청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콘텐츠 추천도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코스피 7000선 올라섰지만… 예탁금 줄고 빚투 늘었다

투자자예탁금 97조4911억 기록
약 3개월 만에 39조 넘게 감소
연휴 수급 공백·미중 회담 등 변수

코스피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7000선을 뚫었지만 증시를 떠받칠 자금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투자자예탁금은 100조원 아래로 줄어든 반면 신용거래용자는 33조원을 넘어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일마저 사흘에 그쳐 얇아진 수급이 지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7000선을 탈환했다. 지난 18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2.78% 상승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삼성전자 전 거래일보다 4.21% 오른 27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6600선까지 밀렸던 것과 비교하면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모습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제금리 상승, 국제유가 급등에도 인공지능(AI) 투자와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난 덕분



한강 너머 여의도 증권가를 배경으로 코스피 7000선의 등락과 추석 연휴 전후 증시의 불안한 자금 흐름을 표현했다. 21~23일 사흘만 열리는 증시와 함께 줄어드는 투자자예탁금, 늘어나는 빚투를 파란색 하락 화살표와 빨간색 상승 화살표로 나타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다.

다만 지수 반등과 달리 증시 대가자금은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가장 최근 집계일인 지난 17일 97조4910억7300만원을 기록했다. 하루 전보다 2조원 넘게 줄며 다시 10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 6월 23일 136조8313억6700만원과

비교하면 약 3개월 만에 39조원 넘게 감소했다. 월평균 예탁금도 7월 109조7000억원에서 8월 102조1000억원, 이달 들어 17일까지 100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예탁금이 줄어드는 사이 '빚투'는 늘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17일 33조730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이 25조9507억원, 코스닥시

장이 7조1223억원을 차지했다.

신용거래용자의 월평균 잔고는 8월 30조9000억원에서 이달 33조원 수준으로 약 2조원 늘었다. 지난달 초 27조원대까지 줄었던 잔고가 지수 반등 과정에서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단기 차입 성격이 강한 미수거래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137억7400만원,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4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매매 비중은 2.4%였다.

시장 전반의 대가자금은 줄어든데 일부 투자자는 빚을 늘려 상승 종목을 추격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잔고가 높은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늘어나 낙폭을 키울 수 있다.

명절도 변수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만 문을 연다. 거래일이 짧은 데다 주요 대외 일정이 연휴 기간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관망심리 확산과 거래대금 감소, 얇아진 호가 및 수급 공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연휴로 인한 일시적

인 현상인 만큼 단기 변동성을 시세의 본격적인 변화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연휴 이후 증시 방향을 가늠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과 AI, 첨단 반도체, 희토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 반도체 규제의 방향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국제금리와 국제유가도 부담이다.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는 장중 5%를 넘어선 뒤 해당 수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 전후 5거래일 코스피 평균 수익률이 각각 -0.42%와 0.68%였다고 분석했다. 연휴 전 수급 공백으로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연휴 이후 반등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금감원, 증권사에 투자자 보호 강화 주문

“회사 배 불리는 영업 관행 개선”
CCO 재의요구권 확대 등 요구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과 수수료 전가 등 투자자보다 회사 이익을 앞세우는 증권사의 영업 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고위험 금융상품은 기획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사전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재완 금융투자부 부원장보 주재로 21개 증권사 준법감시인과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더 이상 보여주지식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 거점점포 검사에서 위법한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준법감시인 대상 간담회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부통제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영업 현장의 위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투자자 다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보호 절차도 재점검하도록 했다. 핵심성과지표(KPI)에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해외주식 이벤트·광고와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출시 이후가 아닌 설계·제조 단계부터 위험 요인과

이해상충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를 점검한 결과,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관련 임원에게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하라고 주문했다. 신규 상품의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를 정할 때 CCO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금융당국, 미성년자 미수거래 막는다

거래소·협회 규정 정비 검토
미성년자 미수금 반년 새 67% 증가

미성년자의 미수거래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거래 제한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금지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다시 늘어나는 신용융자 등 증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부족한 대금을 채우는 거래다.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당국은 미성년자의 투자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데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이용해 고위험 투자에 나설 경우 미성년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미성년자에게 레버리지 상품과 미수거래 등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를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지목했다.

실제 미성년 투자자의 미수금은 증가세다. 국내 10대 증권사의 만 20세 미만 투자자 미수금 잔고는 올해 1월 말 1억2000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66.7% 늘었다.

증권사들은 제도화에 앞서 선제 조치에 나섰다.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 신규 신청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차단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제한을 적용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업계 전반에 관련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증권사의 자율 조치와 별개로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기에 다시 불어나는 ‘빚투’ 관리에도 나선다.

/허정윤 기자

KB운용, 펀드·ETF 상품정보 한곳에

통합 홈페이지 새단장

KB자산운용은 펀드와 RISE ETF 상품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관련 투자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펀드와 ETF 홈페이지 통합이다. 최근 ETF 시장 성장과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를 반영해 첫 화면을 RISE ETF 중심으로 구성하고, 펀드와 ETF 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펀드와 ETF 상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명뿐 아니라 편입 종목, 투자 테마 등 연관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다. 펀드와 ETF 페이지 간 이동도 간소화해 관심 상품과 관련된 투자정보를 연이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AI 기반 투자정보 서비스도 새롭게 강화했다. 대화형 AI 서비스 ‘RISE AI’를 통해 상품 정보와 시장 동향을 질문할 수 있으며 분배금, 추적오차 등 투자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

다단계·협동조합 가장한 유사수신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22일 다단계 방식과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다단계 유사수신 관련 민원은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은 10건이다. 금감원은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다단계 유사수신회사는 차장·팀장·점

장·본부장 등 여러 직급을 만들고 하위 투자자 수나 매출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높은 소개 수당을 앞세워 기존 투자자를 신규 회원 모집책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다.

초기에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다. 신규 자금 유입이 끊겨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면 업체가 폐업하거나 주동자가 잠적한다. 먼저 투자한 사람도 가족과 지인을 끌어들

었다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업체들은 리조트와 소풍물, 렌터카, 가상자산 등 투자자의 관심을 끌 만한 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제 사업 구조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매일 수익을 지급하거나 거래소 상장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연 15% 이상의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모집 완료 시 종료’ 등의 문구로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허정윤 기자

美 유통망 넓히고 맞춤 종자 키운다… 농협, 북미 공략 본격화

강호동 회장 LA 현지법인 사업 점검
H마트 등 유통사와 판매 확대 논의
판로 확대·현지 맞춤 종자 등 개발
금융 계열사 시장정보·네트워크 지원

농협이 북미 지역에서의 상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유통망 확대와 신규 판로 확보를 비롯해 현지 맞춤형 종자 개발에도 주력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직접 캘리포니아를 찾아 현지법인들의 최근 사업 동향을 살폈다.

21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현지 소재 범농협 계열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 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자리에는 경제지주 계열사와 금융지주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해 각 법인의 사업 현황 및 시장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경제지주 쪽 NH농협무역(농협아메리카), NH농우바이오(농우시드아메리카), 농협사료(NH-HAY)와 ▲금융부분의 NH농협은행(뉴욕지점), NH투자증권(뉴욕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마트를 방문해 농협 농축산물의 현지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현지법인)이다.

NH농협무역은 미국 내 농식품 유통망 확대와 신규 판로 개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NH농우바이오는 미주시장 맞춤형 종자 개발과 영업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또 농협사료는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은 현지 금융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타 계열사에 제공한다.

농협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미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시장변화 대응 방안, 경제·금융계열사 간 협업 및 현지 네트워크 활용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미국 현지 주요 유통업체 경영진과도 면담을 가졌다. H마트를 찾아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 확대 및 양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남제인에서는 한인·아시아 소비시장의 변화 및 소비자의 최신 선호도 등을 중점으로 파악했다.

또 갤러리아마트 올림픽점을 방문해 농식품 판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소비자 반응 등을 살폈다. 농협은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농협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강 회장은 “미국은 농협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 시장으로, 현지 사업 역량과 유통 네트워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법인과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농식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 사업 부문에선 유통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와 관련해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16일 강원 영월 한반도농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농산물유통개척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통해 지역농협, 외부전문가, 농

업인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농업경제 중장기 발전전략’을 공유했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은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 구현을 위한 유통개척 실천 의지를 다졌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농업경제 중장기 발전전략은 전속출하를 중심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둔다. 농협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혁신하는 게 목표다. 조합원·지역농협·농협경제지주로 이어지는 계열화를 강화하고, 전속출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판매 기능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중장기 발전전략이 농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협은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주병기 “기업 조사 회피 여지 없애겠다”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내부 규칙 개정 방안 검토
쿠팡·한화 효력정지 결정 후속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과 한화 등이 제기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기업들의 조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결정을 두고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가) 30일 정도 유보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또 제지·제분 업체의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1심 법원 기능을 겸하는 공정위 수장이 상급심 판단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는 것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고, 경찰·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현장 조사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못 하거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쿠팡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사 때문에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된지와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과 관련해서도 “(기업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는지 솔직히 광장히 의문”이라며 “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침해는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회피 방식을 위한 내부 규칙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내부 규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업들의) 조사 회피 여지를 분명하게 없애는 방식의 개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은 조사 협조를 잘 받아서 이뤄지고 있다”며 “(쿠팡, 한화 등) 두 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제 조사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벌레 ‘고소애’ 추출물로 노인 근력 지킨다

농진청, 10년 연구 끝 기능성 원료 등록

곤충에서 추출한 성분이 사람의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여성의 경우 기대여명이 일본 여성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등 고령화가 사회 깊숙이 파고든 상황에서 이 성분이 널리 각광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촌진흥청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갈색거저리 애벌레’를 고단백 영양제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냈다.

농촌진흥청이 21일 소개한 갈색거저리 애벌레는 ‘고소애’ 또는 ‘밀웜’으로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소애의 가수분해물(효소 등을 이용해 단백질을 미세 펩타이드 또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것)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것.

농진청은 지난 2016년 3월 식품공전에 고소애를 일반식품 원료로 등록했다. 이



갈색거저리 애벌레 ‘고소애’의 분해물. /농진청

후 새로운 단백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수술 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고소애가 근 감소 억제 및 면역세포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게 고소애 셰이크를 섭취토록 한 결과 단백질 섭취율이 높아졌다. 아울러 위장각(세파막의 구조적 완전성, 세파 건강도, 영양상태를 보여주는 바이오 지표)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데다 근육량 확대, 항암부작용 완화 등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추석 귀성길 KTX 타면 탄소배출 78% 감소

기후부, 서울~부산 1인 왕복 8.8kg

추석 연휴 귀성길에 자가용 대신 고속철도(KTX)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8%까지 줄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서울역 2층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기관과 공동으로 ‘대중교통 타고 기후행동, 친환경운전으로 함께 하는 귀성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인 가족이 휘발유 중형 SUV로 이동할 경우 1인당 왕복 40.33kg의 이산화탄소가 배

출된다. 반면 KTX를 이용하면 1인당 배출량이 약 8.8kg으로 급감한다. 4인 가족이 귀성길 수단을 KTX로 변경할 경우 왕복 기준 총 126.12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셈이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서는 열차이용객을 대상으로 트럼프 비우기 △3속(과속·급가속·급감속) 하지 않기 △전기수소차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4가지 친환경운전 수칙 실천 투표와 ‘기후시민 10가지 약속’ 홍보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실천운동은 귀성길 국민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 올라도 상한 유지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2022년 3분기 이후 18분기째 상한
산정상 필요조정단가는 7.34원 기록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수준에서 동결된다. 국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이 적용되면서 기존 요금이 유지된다.

21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6년 10~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확정됐다. 이로

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8개 분기 연속 최다치(+5원)를 유지하게 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고정하고 여타 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 가구 및 산업계의 4분기 전기요금 부담은 3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의 유연탄, LNG, BC유 등 무역통계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2026년

6~8월 세후 평균 무역통계가격을 적용한 실적연료비는 kg당 549.64원으로,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kg당 494.63원)를 상회했다.

이에 따른 변동연료비(kg당 55.01원)에 변환계수(0.1335kg/kWh)를 곱한 필요조정단가는 kWh당 7.34원으로 계산됐다. 산정 공식상으로는 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한전은 이에 따라 조정단가를 상한선인 +5.0원/kWh로 결정했다.

연료비 상승분이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의 재무적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업의 비즈니스를 더 특별하게

출장부터 기업행사까지, S&Miles가 함께합니다

기업 맞춤 MICE · 인센티브 전문 여행사 S&Miles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아시아 대표 금속가공 전시회

MWCS 2026
CIIF 동시 개최



상하이(Shanghai) · 중국

2026. 10.12(월)~10.16(금)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anghai)
국가전람중심 (NECC)

1인 129만 원~

4박 5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일본 최대 공작기계 전문 전시회

JIMTOF
2026



도쿄(Tokyo) · 일본

2026. 10.26(월)~10.31(토)

Tokyo Big Sight (도쿄 빅 사이트)
전시장 : 전관 (East & West Halls)

1인 155만 원~

5박 6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01(화)~12.03(목)

Messe Düsseldorf
HALL 1 · HALL 3

1인 215만 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 02-3487-2800
@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학교 냉난방기 8대 중 1대 ‘노후’ 3년 새 평균 전기요금 1405만원 ↑

수도권, 노후 냉난방기 54.6% 몰려
2023년에만 전기요금 940만원 ↑
한병도 의원 “재정·학습환경 손해”

전국 학교 냉난방기 8대 중 1대가 교육부가 정한 사용연수 12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설비가 누적된 가운데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3년 새 29.4% 올라 학교 재정 부담도 커졌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가 보유한 냉난방기 64만4756대 가운데 7만9166대(12.3%)가 사용연수 12년을 초과했다.

지역별 노후율은 대전이 24.2%로 가장 높았다. 대전 학교 냉난방기 4대 중 1대가 노후 기기인 셈이다. 인천도 20.5%에 달했고 서울 14.8%, 광주 14.2%, 부산 13.8%, 경기 13.7% 순이었다.

반면 신설 학교가 많은 세종은 노후율이 1.6%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제주 3.2%, 강원 5.8%, 울산과 충남이 각각 6.5%였다. 대전의 노후율은 세종의 15배에 육박했다.

〈학교 보유 냉난방기 현황〉/한병도 의원실

지역	냉난방기 설치	노후설비
서울	91,838	13,549
부산	37,175	5,117
대구	30,303	3,186
인천	36,590	7,498
광주	18,711	2,651
대전	23,216	5,608
울산	15,284	991
세종	7,635	125
경기	162,042	221,74
강원	21,136	1,222
충북	22,126	2,371
충남	31,771	2,063
전북	28,333	1,905
전남	29,477	2,334
경북	37,021	3,500
경남	43,160	4,584
제주	8,938	288

노후 기기 수는 경기가 2만2174대로 전국의 28.0%를 차지했다. 서울 1만3549대, 인천 7498대가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국 노후 냉난방기의 54.6%가 몰렸다.

한 해 동안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한 냉

난방기 대수는 2023년 6만4468대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4년 5만5957대, 2025년 4만7791대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5.9% 줄었다.

같은 기간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은 증가했다.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2022년 4778만원에서 2025년 6183만원으로 3년 동안 1405만원(29.4%) 올랐다. 상승 폭은 2023년에 집중됐다. 학교당 전기요금은 2023년 한 해에만 940만원(19.7%) 올랐고,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4.0%씩 상승했다. 2025년 기준 학교당 전기요금은 세종이 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04만원, 울산 7020만원, 대전 6916만원, 경기 6843만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전북은 4584만원으로 세종과 1.83배 차이가 났다.

한 의원은 “전기요금이 3년 만에 학교당 1400만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수명이 지난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청 재정과 학생 학습환경 모두에 손해”라며 “교육부가 연도별 교체 목표와 고효율 기기 전환 비율을 담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21일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날 기념 국제회의의 Peace BAR Festival(PBF)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기자간담회에 세계원자과학자회보(BAS) 주요 인사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경희대 김원수 미래문화원장, 알렉산드라 벨 BAS 회장, BAS 다니엘 홀츠 과학·안보위원회 의장·데이비드 쿨만 이사회 의장·아비 로브 하버드대 석좌교수 겸 미원평화상 선정위원.

/김수정 기자

경희학원, ‘제2회 미원평화상’ BAS 시상

〈세계원자과학자회보〉

BAS 석학들 ‘교육의 역할’ 강조

“학생들에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대학이, 그 역할을 AI에 넘겨주고 있는 않은가.”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 기관인 세계원자과학자회보(BAS) 석학들이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 속 대학과 연구자가 지켜야 할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희학원은 21일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에서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날 기념 국제회의의 Peace BAR Festival(PBF)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렉산드라 벨 BAS 회장, BAS 데이비드 쿨만 이사회 의장·다니엘 홀츠 과학·안보위원회 의장·존 포프 공보·소통 총괄과 아비 로브 하버드대 석좌교수 겸 미원평화상 선정위원 등이 참석했다.

아비 로브 교수는 핵무기를 둘러싼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설립된 BAS가 정책 입안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온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그는 핵무기뿐 아니라 AI 역시 BAS가 경계하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알렉산드라 벨 BAS 회장은 수상에 감사와 영광의 뜻을 밝히며, BAS는 지난 80년간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의 현황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AI 역시 과학기술을 넘어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지목됐다. 홀츠 위원장은 “AI가 다른 위협과 다른 점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라며 “기술 안전과 통제가 전반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만큼, 실제 도입에 앞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원평화상은 경희학원이 설립자 미원조영식 박사의 세계평화 사상을 기려 제정한 상으로, 지구촌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서울 주택공급 부족, 과거 정비구역 해제 영향”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

오세훈 시장, 박원순 전 시장 시정 지적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그동안 전임 시정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책임을 현 서울시에 돌리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참지 않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이들 구역의 예정 물량은 43만호였다”며 “당시 재개발·재건축을 독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주택 부족이 발생했겠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재개



오세훈 서울시장의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발·재건축 중단이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으며, 이들 구역의 계획상 공급 물량은 43만호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데 이어 주거정비비수제 폐지와 역세권 종상향 등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4개 구역·30만7000호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을 ‘뺑탄화’ 현상으로 평가한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전세물량이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오르고 있다”며 “서민들이 이를 견디지 못해 지구책으로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고 있는 것이 외곽 집값을 끌어올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년부터 결과까지 소상히 보고받고 깊이 성찰한 뒤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 정부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데, 많은 시민이 좌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민경선 시장 “청년들 실질적인 기회 제공”

고양시 청년의 날 맞아 소통간담회

고양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지역 청년들과 직접 만나 일자리와 창업, 교통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고양시는 지난 19일 덕양구 화정동 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에서 ‘2026년 고양청년의 날 청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경선 고양시장과 지역 청년 6명이 참석해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경선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19일 덕양구 화정동 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에서 ‘2026년 고양청년의 날 청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경선 고양시장(가운데)과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 시장은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또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교육청, 22일 ‘교육공동체 문화다양성 콘서트’ 개최

‘다름·소속감’ 주제… 조나단 강연

서울시교육청이 방송인 조나단과 함께 ‘다름’과 ‘소속감’을 주제로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 본청 대강당에서 ‘2026 교육공동체 문화다양성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시작해 12월까지 매달 열리는 연속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에는 교원·직원 400여 명

이 참여해 강연과 공연 등을 관람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송인 조나단이 ‘우분투: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공교민주공화국 출신인 조나단은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며 경험한 ‘다름’과 ‘소속감’에 대해 공유하고, 다문화 교실에서 필요한 관계와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협연 무대도 이어진다.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으로 구성된 우리다문화어린 이합창단과 발달장애인 임직원들로 구성

된 우리은행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Heal the World’와 ‘아름다운 세상’ 등을 연주한다. 음악을 통해 공존과 연대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담 세션에서는 정근식 교육감과 조나단, 사회를 맡은 연극배우 준불 베틀이 ‘우리가 그러는 서울교육’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교직원들의 학교생활 에피소드와 고민을 듣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수원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7’ 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7(Cyber Summit Korea 2027)’이 수원특례시에서 열린다.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주관하는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내외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사이버안보 유관기관, 정보보호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다. 전 세계 33개국 60개 기관에서 3000여 명이 참가

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국제정보교류회의와 국제 콘퍼런스, 국제사이버훈련(APEX),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기업 전시 등 사이버안보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행사 기간 수원화성문화제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해 국내외 참가자들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유통업계, 인니 할랄시장 연다… 동남아 브랜드 영향력 확대

BBQ 자카르타 등 점포 오픈
오투기 할랄인증 진라면 판매
농심 할랄전용 생산라인 가동
엔제리너스 인니 진출 공식화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자 인구 4위의 대국인 인도네시아를 향한 국내 기업들과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할랄 인증 지원사격에 발맞춰 국내 대표 유통·외식 기업들 역시 현지 맞춤형 전략을 적극 펼치며 동남아 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 JPH)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원재료 사용과 위생·생산·유통 관리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하는 국제적 품질 인증 제도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기술·인적 자원·인프라 및 연구개발(R&D)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증기관 정보 공유와 할



bhc 인도네시아 2호 매장 '간다리아 시티점'.

랄 제도·정책 교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다.

정부의 지원 사격 속에 국내 식품·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현지 시장 공략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중 15~34세 젊은 층 비중이 35%에 달하는 데다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K푸드 진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선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의 매장 영토 확장이 눈에 띈다. BBQ는 현지 대표

식품기업 구봉제우그룹 계열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자카르타 등 주요 지역에 점포를 연달아 오픈하며 동남아 공략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다. bhc 역시 지난해 자카르타 네오소호몰 1호점에 이어 올해 2호점을 개점했으며, 현지 가구의 85%가 이용하는 오토바이 기반 배달 플랫폼 맞춤형 서비스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도 현지 F&B 기업 보가자아 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엔제리너스는 보가자



오투기 할랄인증 진라면 매대.

아 그룹의 공항 내 매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안다 국제공항 1호점을 비롯해 주요 쇼핑몰 등에 5년간 10개 매장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지닌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사업 확대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라면업계의 할랄 시장 공략도 거세다. 오투기는 인도네시아 올라마위원회(MUI)로부터 진라면과 치즈라면 3종에 대한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현지 대형마트 및 이커머스(쇼피, 톡톡숍) 입점을 완료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BTS)진을 모델로 한 'Jinja Love, 진라면' 캠페인과 100여

명의 인플루언서 협업 마케팅을 펼치며 현지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농심은 일찍이 2011년 부산공장에 할랄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 신라면·너구리·짜파게티 등 46개 제품의 할랄 인증을 받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40여 개국에 수출해 왔다. 최근에는 현지 입맛에 맞춰 닭육수와 커리 풍미를 더한 '신라면 스파이시 치킨'과 '신라면 톰바', '신라면 볶음면 치즈' 등 신제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삼양식품 역시 2017년 국내 라면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MUI 인증을 획득한 이래, 현지 1인당 라면 소비량 세계 2위(145억 봉지) 시장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 열풍을 이어가는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전역으로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대 전략 시장"이라며 "정부 간 할랄 인증 협력과 기업들의 현지화 제품 및 마케팅이 시너지를 내면서 K푸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百, 외국인 대상 역대최대 쇼핑 행사 대응계약, '베르시포르신' 임상 2상 순항

내달 11일까지 '글로벌 쇼핑 페스타' 방향 성수기 맞아 다양한 혜택 마련

신세계백화점이 중국의 중추절·국경절과 일본 실버윌크 등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방한 성수기를 맞아 한국관광공사,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외국인 대상 쇼핑 행사를 연다.

신세계백화점은 10월 11일까지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타임스퀘어점에서 '신세계글로벌 쇼핑 페스타(SHINSEGA GLOBAL SHOPPING FESTA)'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기획한 쇼핑 행사로,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쇼핑 콘텐츠와 혜택을 마련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비짓코리아(VISITKOREA)'와 SNS 채널을 통해 홍보를 맡는다.

패션·뷰티·K푸드 등 120개 브랜드와 글로벌 페이먼트사, 텍스리펀드사가 참여한다. 브랜드 프로모션과 상품권 사은, 쇼핑 바우처를 비롯해 글로벌 결제와 세금 환급 혜택 등을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



이 올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 중 최대 규모다.

신세계백화점의 외국인 고객 소비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본점의 올해 1~8월 누계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1% 신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통해 외국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쇼핑 페스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패션·뷰티·K푸드 장르를 중심으로 쇼핑 혜택을 선보인다.

쥘데가르송 포켓, 폴스미스, 겐조, 아미, 준지, 자크뫼스, 토리버치 등 참여 브

랜드에서는 구매 금액에 따라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K푸드 분야에서는 정관장, 오설록 등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증정하며, 떡볶이·김밥 등 K-델리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뷰티 분야에서는 설화수가 자음생 3종 세트 등 신세계 단독 스페셜 세트와 구매 금액별 추가 증정품을 선보인다. 맥·바비·브라운·아베다도 결제 금액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 페이먼트사와 연계한 결제 혜택도 제공한다. 알리페이 결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별 즉시 할인과 신세계상품권, 신세계 멤버스바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위챗페이 결제 고객에게는 환율 우대와 할인 쿠폰을, 유니온페이 결제 고객에게는 랜덤 할인과 상품권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인 관광객 대상으로는 명동 JCB 플라자에서 쇼핑 바우처팩을 배포하며, 글로벌텍스프리(GTF)를 통해 코스메틱 분야에서 즉시 환급받은 고객에게는 신세계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애경산업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글로벌 토탈 뷰티 기업 애경산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자사와 거래하는 5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125억원 수준의 납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7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을 기반으로 한 공급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롯데百,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여

백화점 업계 최초… 체험형 부스 운영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여했다.

21~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사회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행사다. 정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롯데백화점관에서는 'Better Me, Bett

er Earth, Better Society(더 나은 나, 더 나은 지구, 더 나은 사회)'를 슬로건으로 사회공헌 캠페인인 '리조이스(REJOICE)'와 '리얼스(RE:EARTH)'를 연계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고객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부스로 조성했다.

이 밖에도 방문 고객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화면에 송출하는 '메시지월'을 비롯해 고객 체험 인증 데이터에 따라 지구 모형의 LED 불빛이 변화하는 '리임팩트 플래닛'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선보였다. /김서현 기자

‘ERS 2026’서 2상 포스터 발표

대응계약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6 유럽호흡기학회(ERS 2026)'에서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베르시포르신(DWN 12088)'의 글로벌 임상 2상 전체 등록 환자 104명의 특성 분석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다양한 염증 및 섬유화 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축적되는 질환이다. 대응계약이 자체 개발 중인 베르시포르신은 프롤린-tRNA 합성효소(PRS)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섬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콜라겐 생성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는다.

이번 발표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집된 IPF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베이스라인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다. 대응계약은 앞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국제학술대회(KATRDIC 2025)에서 임상 2상 중간 등록 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ER

S 2026에서 전체 환자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분석 결과, 전체 환자 104명 중 한국 환자는 55명(52.9%), 미국 환자는 49명(47.1%)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항섬유화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71명(68.3%), 투여하지 않는 환자는 33명(31.7%)이었다. 환자들의 평균 FVC(노력성 폐활량)는 정상 예측치의 약 77%, DLCO(폐확산능)는 약 5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 항섬유화제 사용군과 미사용군의 전반적인 기저 특성은 대체로 유사했다.

박성수 대응계약 대표는 "글로벌 임상 2상 환자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전체 환자 특성을 ERS 2026에서 공유하게 된 것은 베르시포르신 개발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2027년 상반기 임상 2상 주요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글로벌 개발과 사업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 세계 IPF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한양행, '제4회 YIP 네트워킹 데이' 성료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조옥제 대표 등 50여명 참석

유한양행은 지난 18일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윌로우하우스(Willow House)'에서 '제4회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YIP)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양행 조옥제 대표이사과 김열홍 연구개발(R&D) 총괄사장을 비롯하여 R&D 본부의 임원, 주요 연구진 그리고 YIP 연구책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여 YIP 과제의 연구진행 상황과 함께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과제 진행상황 공유를 위한 구두발표와 함께 연구 포스터를 전시했으며, 행사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 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이 이뤄졌다.

유한양행 조옥제 대표는 "기초연구를 통해 축적된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혁신 신약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과학적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현대차 ‘모터스튜디오’ 12년 공간 철학, 영화로 담았다

자동차 전시 넘어 복합 콘텐츠 경험
6개 거점, 매년 130만명 이상 방문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체험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의 자동차 전시장을 넘어 사람과 문화,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진화한 12년의 여정을 영화로 기록했다.

현대차는 현대 모터스튜디오의 공간 철학과 변화 과정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더 스튜디오: 바퀴 위 공간에서, 땅 위의 공간으로’를 21일 개봉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서울에서 첫선을 보인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차량을 보여주는 공간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자동차와 브랜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는 복합공간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현재 서울·하남·고양·부산과 중국 베이징, 인도네시아 스나안파크 등 6개 거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



‘더 스튜디오’ 주요 스틸컷 중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외관 전경

/현대차

년 13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이번 다큐멘터리 연출은 ‘이타미 준의 바다’의 정다운 감독이 맡았으며 자동차라는 바퀴 위 공간’에서 출발해 지역과 문화에 스며드는 ‘땅 위의 공간’으로 확장된 현대 모터스튜디오의 공간 철학을

조명한다. 건축가와 디자이너, 운영 담당자, 문화예술 관계자, 방문객 등의 시선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 공간의 의미를 담아냈다.

특히 현대차는 모터스튜디오를 단순한 브랜드 홍보 공간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

의 시도와 실험이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자동차를 중심에 두면서도 건축·예술·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과 지역사회가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를 추구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10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건축 모형과 초기 스케치 등을 선보이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수장고: 12년의 기록’ 특별전 시도 개최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자동차를 넘어 사람과 문화,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더 넓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12년 동안 공간을 만들어온 사람들과 이를 경험한 방문객이 함께 쌓아온 이야기를 영화에 담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우리금융, 스포츠 꿈나무 성장 지원

우리금융이 취약계층 스포츠 꿈나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 ‘우리드림브릿지’를 출범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9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사회공헌 콘서트 ‘2026 우리 모모콘’을 개최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GS리테일, 소비자리더 장학증서 수여

GS리테일이 소비자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후원을 18번째 이어가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GS강서N타워에서 ‘2026 GS SHOP 소비자리더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18일 소비자리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하고 홀쇼핑 방송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GS리테일



현대엔지니어링, 현충원 봉사활동

현대엔지니어링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지난 19일 임직원 가족과 국립서울현충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신한은행, 흥천에 나무 심어 숲 조성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강원도 흥천군 방내리 일대에서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레닛과 함께 ‘솔(SOL)방울 포레스트(FOREST)’ 2차년도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구상나무 식재에 참여해 포즈를 취했다.

/신한은행



소진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교육부·인사혁신처 인증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유오 상임이사(오른쪽)가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교육부·인사혁신처 인증을 받고 있다.

/소진공



롯데케미칼 임직원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전남광주 여수 금오도 일원에서 해양환경 정비활동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금오도 거머리말 복원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앞장
거머리말 약 2만주 이식

롯데케미칼이 국립공원공단과 전남 여수 금오도의 거머리말 군락지를 복원해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대를 추진한다.

롯데케미칼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일원에서 해초지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블루카본(Blue Carbon) 저장원인 거머리말 군락지를 복원해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 시작

한 1차 복원사업에서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 일원에서 거머리말 약 2만주를 채취해 금오도 해역에 이식했다.

향후 국립공원공단과 이식한 거머리말의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초지 복원사업과 연계한 환경보호 활동도 진행했다. 롯데케미칼 임직원과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18일 금오도 일원에서 합동 해양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여수 도서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환경 놀이’ 교육도 진행해 미래 세대에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을 알렸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E&A, 임직원 가족과 사옥 투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삼성E&A는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GEC(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에서 임직원 가족초청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세 차례 행사에는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무공간과 산책로, 옥상 정원, 홍보관 등을 둘러보며 스탬프 모으기 미션을 수행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심폐소생술과 비상대피, 소화기 사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았다.

/성채리 기자 cr56@

현대백그룹, 창신동에 긴급주택 조성 지원

현대L&C·현대리바트 등 4개 계열사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L&C·현대리바트·지누스·현대그린푸드 등 4개 계열사가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주거복지센터가 진행한 ‘창신동 빈집 활용 긴급주택’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주택은 화재나 침수 등으로 갑작스럽게 살 곳을 잃은 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구할 때까지 머무는 임시 거처다.

이번 사업에서 현대L&C·현대리바트·지누스 등 현대백화점그룹 리빙·인테리어 계열사는 각사의 사업 역량을 토대로 긴급주택 조성을 지원했다.

현대L&C는 바닥재·벽지·인테리어필름 등 건자재와 시공 부자재를 제공하고,

리모델링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인테리어필름 시공 교육과 공간 디자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현대리바트는 서랍장·옷장·소파·식탁 세트 등 가구를, 지누스는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지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사업 기간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했다.

새로 마련된 긴급주택은 종로구 창신동에 있던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58.07㎡(약 48평) 규모의 빈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지상 1·2층에는 긴급주택 4가구, 지하 1층에는 주민 공용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오늘의 날씨

9월 22일(화)

음력 : 8월 12일

수도권 날씨

18 ~ 2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19 | 해질 / 18:30

연천 14/28

동두천 15/28

가평 13/27

파주 15/28

서울 18/29

양평 15/28

인천 19/29

수원 19/28

용인 19/28

평택 16/28

백령도 18/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문화기술과장 김혜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최금정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인 권리보호과장 신재광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문화수출통상과장 전상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권건보, 김광수, 윤영미

부음 ▲김채희 씨 별세, 정대운(뉴스토피아 대표)씨 모친상 = 20일, 수원한독병원장례식장 무궁화실, 발인 22일 11시30분. 031-212-4444

▲박병영씨 별세, 이장님 배우자상, 박순규(더팩트 논설실장 겸 디지털미디어본부장)·박진규·박순옥·박봉근·박선희 부친상, 김안요·전혜진 시부상, 박찬준·박성진·박민수·박민아 조부상, 나은지·나규석·송지영·송원준·김면수·김형수 외조부상, 김다솜·노혜은·정재원·오은지 시조부상 = 20일, 전남광주 함평군 함평읍 함평농협 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23일 6시, 061-322-4444

▲박명자씨 별세, 이국·직(한국일보 신문총괄부문 편집위원)씨 모친상, 신은영(교사)·이소연(문학평론가)씨 시모상, 이재학·은하·나현씨 조모상 = 20일 오후 10시 은평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15분, 02-2030-4444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AI 시상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SW·AI 산업의 발전과 국가 AI 대전환(AX)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술·제품 및 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우수 사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말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분	시상 내역
부총리상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접수마감 : 2026. 9. 30.(수)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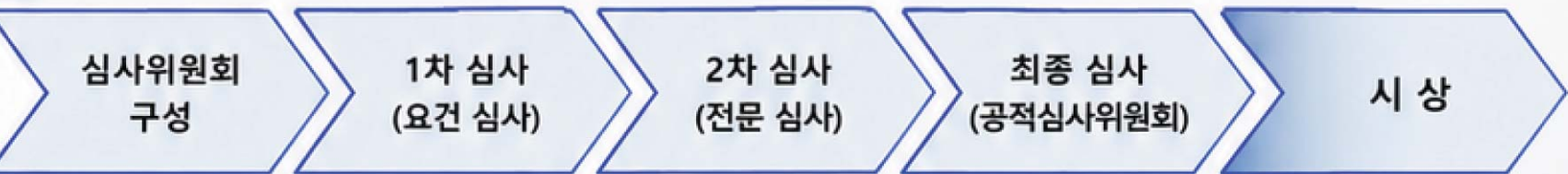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awards@kswict.or.kr)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세부사항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 :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www.kswict.or.kr)에서 확인·다운로드

시상 : 2026년 11월 예정

심사 절차



문의 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02-858-8510)

정치인이 읽어야 할 ‘물가 너머의 질문’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추석을 앞두면 정치인들이 무리를 지어 전통시장을 찾는 관례가 있다. 떡볶이와 붕어빵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맛보고, 전집 앞에서 가격을 묻고 전을 구입하기도 한다.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사과와 배, 포도와 같은 과일도 구매 목록에 올라 있다. 목적은 추석 물가가 서민들의 차례상 마련에 부담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이른바 민생 탐방의 시간이다.

시장을 찾은 정치인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으레 묻는 것은 물가다. “올해 추석 물가, 서민들 부담은 어떤가요?” 이 물음에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힘든 내색을 비친다.

그런데 장바구니 안에 담겼을 사과 한 알에 올해의 물가 이야기만 있을까. 정치인들이 전통시장 안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물가에 대해 읽어야 할 것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가’뿐 아니라 ‘왜 해마다 이렇게 요동치는가’의 문제다. 다른 이슈들도 있겠지만 물가 변동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당연히 과일을 익히고 여물게 하는 기후의 문제다.

다행히 올해 추석 상을 차리기 위한 장바구니는 가벼워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의 9월 관측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48만1000톤으로 지난해보다 7.4% 늘 전망이다. 그 덕에 사과값은 지난해보다 10% 넘게 하락했고, 다른 과일 값도 대체로 내림세다.

일이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사과 경우 금사과라는 말이 화자될 정도로 가격이 급격한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는 가격의 예측불가능성이다. 평년보다 과일값이 오르내리는 폭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 해의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엄중한 신호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신호가 주는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나리오를 보면, 2070년대 사과 재배 적지는 강원도 일부 지역으로 좁혀진다. 그로부터 20년 후 2090년대에는 국내에서 사과를 상업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제주에서만 자라던 감귤은 재배지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단감도 산간 지역을 제외한 중부 내륙 전역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된다. 수십 년 안에 한반도의 과일 지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추석에 사과와 배를 나누어 먹고 상에 올리는 일은 오랜 세월 이 땅의 기후와 절기에 맞춰 자리 잡은 문화다. 기후가 바뀌니 문화도 변화하게 된다.

전통시장 안에 머무는 물가지수는 기후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는 날씨는 예측불가능한 수확의 얼굴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 먼 미래의 정책 과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다가온 문제라는 뜻이다.

올해도 정치인들은 전통시장으로 우르르 몰려갈 것이다.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느라 바쁠 것이다. 퍼포먼스이든 아니든 정치인들이 민생 현장을 찾아 서민의 일상에 시선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민생을 이루는 다양한 의제 속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의제가 추석이라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하길 바랄 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의 지도부나 지역구 의원이 전통시장에서 붉은 사과 한 알을 집어들 때,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질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 사과가 몇 년 뒤에도 이 가격으로 우리와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의 특산지에서도 여전히 잘 자랄 수 있을까, 지역 곳곳의 사과 산지를 몇십 년 뒤에도 지켜낼 정책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 나서는 정치인들의 웅성거림은 질문이 바로 그들이 자주 말하는 ‘진짜 정치’의 본질일 것이다. 손에 쥔 붉은 사과 한 알이 품은 기후위기의 무게를 읽어낼 수 있는 그들을 만나고 싶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AI 캐릭터 채팅, 관계가 오락이 될 때



김 보 민
(IT부)

인간관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갈등이 생기면 풀아가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캐릭터와의 채팅에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거나 만들어 현실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시도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를 리셋하거나 종료하면 된다.

이용자가 설정한 관계는 플랫폼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AI 모델의 작동 범위 안에서 전개된다. AI 캐릭터 채팅 앱 ‘제타’를 둘러싼 논란은 그 영향을 보여준다. 일부 캐릭터 제

작자들은 자신이 만든 캐릭터가 설정과 달리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대화를 이어간다고 호소했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갈등과 괴롭히는 전개가 반복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는 AI 캐릭터와의 채팅이 ‘가상의 이야기’로만 끝난다고만 볼 수 있느냐. 캐릭터와의 갈등이 이용자를 붙잡는 돌발 사건이 되고, 상대를 통제하거나 굴복시키는 과정이 오락으로 소비된다면 그 경험이 이용자의 생각과 감정에 미칠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AI가 고도화될수록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더욱 흐려진다. 특히 재미와 지속적인 이용이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 AI 캐릭터 채팅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순응하는 대화와 예상 밖의 갈등이 모두 이용자를 붙잡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전자는 관계를 뜻대로 통제하는 경험을 반복시키고, 후자는 통제하기 어려운 자극을 상품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플랫폼은 대화 내용과 채류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 방식을 ‘개선’하고 다음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관계의 규칙과 이용자가 머무를 환경을 설계하는 권력이 된다.

AI 캐릭터 채팅 시장은 커지고 서비스는 해외로 향하고 있다. 해외 진출은 국내 AI 산업의 성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를 붙잡기 위해 갈등과 성적 자극을 반복하는 구조, 국내에서도 검증하지 못한 과몰입과 유해 대화의 위험까지 수출하면서 이를 산업의 성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기술은 AI를 점점 더 ‘인간처럼’ 만든다. 그만큼 사람도 AI가 생성하는 관계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AI가 어떤 행동과 감정을 반복하게 만드는지, 누가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kbm@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2일 (음 8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할 운입니다. 60년생 집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72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84년생 취업을 할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세요.



소

49년생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61년생 옛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3년생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85년생 좋다면 무조건 말고 나가세요.



호랑이

50년생 조바심이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해야 합니다. 62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됩니다. 74년생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86년생 오래 시간을 골수록 불리 합니다.



토끼

51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3년생 운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75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87년생 술을 조심하세요.



염

52년생 꿈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반드시 뜻을 이룰 것입니다. 64년생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76년생 재물운이 좋습니다. 88년생 사소한 계획도 성공합니다.



뱀

53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합니다. 65년생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77년생 조금씩게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봅니다. 89년생 결실이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금해집니다.



말

54년생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66년생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78년생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

55년생 일이 꼬여 답답합니다. 67년생 심신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9년생 사소한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91년생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곳을 찾다 보면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원숭이

56년생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지겠습니다. 68년생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룹니다. 80년생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마세요. 92년생 짧은 시간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닭

57년생 주위 여건이 귀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69년생 일에 조금씩의 발전은 있겠습니다. 81년생 전전긍긍하면서 날을 보냅니다. 93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됩니다.



개

58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0년생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82년생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94년생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59년생 공연한 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겠습니다. 71년생 무리하게 큰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83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95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김상회의四季

혼수모어, 냉철한 지혜

혼수모어混水摸魚는 삼십육계 중 제20계에 해당하는 병법이다. 맑은 물을 어지럽혀 흙탕물로 만든 뒤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맑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경계심이 강하고 재빨라서 손으로 잡기 어렵다. 하지만 물을 흔들어 바다의 흙을 일으키면 물고기는 방향 감각을 잃고 둔해진다. 혼수모어는 이처럼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원하는 목표를 거두는 전략을 말한다. 전략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다. 불리한 상황을 바꾸어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강하다면 상대가 강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경쟁이 치열하다면 경쟁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기술 급변, 경제적 불확실성, 침체된 시장은 마치 흔들린 흙탕물과 같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혼란 앞에서 불안해하고 몸을 사린다.

그러나 전략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오히려 이 시기를 새로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위기일 때 시장의 허점을 찾아내고, 변화의 흐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장은 그야말로 원가 상승, 소비 위축, 수시로 달라지는 유행과 SNS 마케팅은 자영업자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다. 상권이 불황에 빠지면 업체들은 가격 파괴 경쟁이나 무리한 할인 행사로 위기를 자초한다. 그럴 때 자기만의 전략을 준비해 놓았다면 남들과 달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남들이 가격을 낮추며 출혈 경쟁에 나설 때 차별화된 메뉴로 입지를 다지고, 건강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 친환경 식재료를 내세워 특징점으로 만든다. 흙탕물 속에서 알찬 고객과 확실한 수익이라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 삶의 진리는 명확하다. 세상이 어지럽게 흔들려도, 그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냉철한 지혜가 있다면 시련 속에서도 결실을 이룰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0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 기획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7	1	5	6	8	9	
1	1	6	6	8	9	5	2	7
8	6	9	2	8	7	1	9	1
6	8	9	7	9	1	8	1	2
9	7	1	8	6	2	1	8	9
2	8	1	9	1	8	7	6	5
8	1	8	9	9	6	2	7	1
1	9	2	8	7	8	9	1	6
7	9	6	1	2	1	8	5	8

1	8	9	9	6	8	7	2	1
6	2	9	1	9	7	8	8	1
7	1	8	1	2	6	5	9	9
2	8	6	9	9	1	1	1	8
9	9	8	7	8	1	6	2	1
8	6	2	1	7	9	5	2	8
8	1	1	2	8	9	9	7	6
9	9	7	8	1	6	2	1	8

가성비·친환경에 감성까지 더해 취향에 딱 맞는 보금자리 꾸며볼까

상반기에 그나마 재미를 본 가구, 인테리어 시장이 하반기 들어 다소 위축되고 있다. 전방산업인 주택경기의 꾸준한 침체와 소비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다.

그래도 가을이다. 가을은 결혼, 이사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며 전통적으로 성수기에 속한다. 개별 회사들도 가성비, 가심비, 친환경 등을 접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대로, 이사가는 집은 이사가는 대로 발품을 팔고 찾아보면 보금자리에 꼭 맞는 제품이 눈에 쏙 들어온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정보탐색부터 견적·시공까지 ‘창호 전문 플랫폼’서 한 번에

KCC

이맥스클럽

창호 플랫폼 ‘이맥스클럽’ 방문자 증가
단열·차음 등 주거성능 개선 수요 늘어

KCC가 선보이고 있는 창호 전문 플랫폼인 ‘이맥스클럽(Emax Club)’이 가을 이사철과 리모델링 성수기를 맞아 고객들로부터 인기다.

단열과 차음 등 주거성능을 개선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KCC에 따르면 9월 초 보름간 이맥스클럽 홈

페이지 방문자 수는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10% 증가했다. 한 달 사이 홈페이지 유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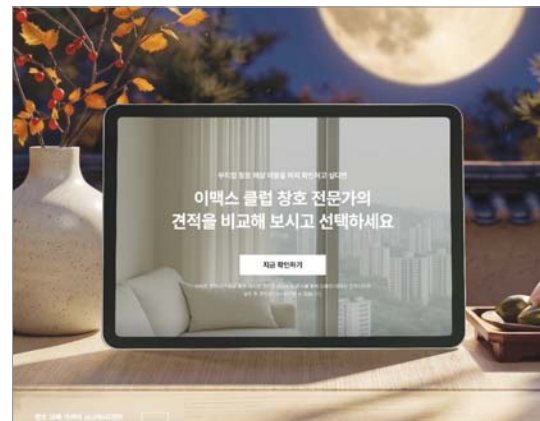
온라인을 통한 실제 창호 구매 검토 움직임도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견적 신청은 전월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전체 회원 수도 10% 가량 늘었다. 가을 이사과 리모델링 수요가 본격화하면서 창호에 대한 관심이 정보 탐색을 넘어 상담과 견적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KCC의 설명이다.

창호는 주택의 단열과 기밀, 차음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건축자재다. 특히 냉난방 효율

과 실내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 창호 교체도 주택 리모델링의 주요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KCC는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해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와 전문 유통·시공 네트워크를 함께 강화하고 있다. 하이엔드 창호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클렌체(Klenze)’를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맥스클럽’은 KCC와 전문 창호 가공·시공업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다. 소비자는 ‘이맥스클럽’을 통해 지역별 전문 업체와 상담하고 제품 선택부터 견적, 시공까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CC의 창호 전문 플랫폼인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상담부터 시공까지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브랜드 출범 20주년 특별 혜택… 가을철 집단장 수요 공략

LX하우시스

역대급 혜택 ‘지인페스타’

내달 5일까지 하반기 최대 할인 행사
창호·주방·바닥·벽지·단열재 등 할인

LX하우시스가 ‘LX Z:IN’ 브랜드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음달 10월5일까지 하반기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지인페스타’를 통해 인테리어 고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21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이번 페스타는 가을 이사철 수요는 물론 노후 창호 및 주방 교체 수요가

몰리는 인테리어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LX Z:IN의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창호·주방·바닥재·벽지·도어·단열재 등 LX Z:IN 제품이 포함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할 경우 제품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에 교체 수요가 많이 몰리는 창호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고단열 창호 ‘뷰프레임’은 물론 PL(플라스틱)시스템창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의 주방가구 ‘셀렉션’을 비롯해 ‘에디션’, ‘엑스컴포트 5.0’ 등 바닥재 전 제품군과 ‘디아망’을 포함한 벽지 전 제품군, 국내 최고의 단열 성능을 확보한 ‘PF보드 단열재’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LX하우시스는 행사기간 동안 총 10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한 고객 중 선착순 3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주요 지역에 위치해 있는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를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LX Z:IN 브랜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X하우시스는 다음달 5일까지 하반기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지인페스타’를 진행한다.

소음 줄이고, 디자인 더하고… 공간 완성하는 바닥재 ‘눈길’

현대L&C

시트 바닥재 ‘소리지움 5.0’

스톤 디자인 확대… 제품군 총 10종
생활소음 저감·바닥 충격 흡수 효과

현대L&C의 프리미엄 시트 바닥재 ‘소리지움 5.0’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1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리지움 5.0의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소리지움 5.0은 현

대L&C가 운영하는 시트 바닥재 중 기능성과 디자인을 강화한 최고급 제품이다.

현대L&C는 올해 초 프리미엄 제품인 ‘소리지움 5.0’을 리뉴얼했다. 최근 주거 인테리어에서 천연석 느낌의 바닥과 대형 타일 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스톤 디자인을 대폭 확대하며 스톤 6종과 우드 4종 등 총 10종으로 제품군을 재구성했다.

새로운 디자인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중심으로 벽지·가구·도어 등 주변 인테리어 요소와 연계해 공간 전체에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개발했다.

넓은 면적에 시공했을 때 같은 무늬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현상도 줄였다.

소리지움 5.0은 생활소음 저감과 편안한 보행감 등 프리미엄 바닥재에 걸맞은 기능성도 갖췄다. 전체 두께 5mm 가운데 약 70%를 고탄성 쿠션층으로 구성해 바닥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한다.

내구성과 생활 편의성도 갖췄다. 표면이 긁힘과 찌힘에 강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적용해 어린 자녀나 고령자, 반려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의 보행 안정성을 높였다. 한국애견협회의 ‘PS(Pet Safety)’ 인증도 받았다.



현대L&C 소리지움 5.0 그레이스 스톤을 적용한 모습.

욕실에도 디자인을 입히다… 슬림함과 곡선미의 조화

교원웰스

스파원

공간 부담 줄인 슬림·플랫 디자인
유니버설 설계로 편의성까지 높여

교원 웰스(Wells)가 지난 6월 선보인 ‘스파원’ 비데는 슬림하고 플랫한 디자인에 부드러운 곡선형 외관을 갖춰 가을철 욕실 인테리어에 제격이다.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에 좌욕과 위생 관리 기능까지 더해 욕실의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하는 동

시에 사용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다. 스파원은 기존 동급 모델보다 시트 커버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길이를 1cm 줄여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했다. 또 고령자나 아이들이 양치할 때 잠시 앉는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관에는 교원 웰스의 디자인 정체성인 ‘자연을 담은 디자인’이 반영됐다. 세정 과정에서 노즐이 무한대(∞) 형태로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물의 흐름에서 영감을 받아 제품 곳곳에 유려한 곡선을 적용했다.

비데 제품 최초로 원형 LCD 디스플레이 ‘스마트 윈도우’를 적용해 여러 기능을 하나의 화면에 담고

불필요한 버튼을 줄였다. 세정 모드와 수압, 온도 등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작부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발한 서체와 기존 대비 2.5배 큰 아이콘을 적용해 저시력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제품 외형뿐 아니라 실제 욕실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까지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공간과 사용 경험을 함께 고려한 스파원의 디자인은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독일 ‘데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에 이어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2026’ 제품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교원 웰스(Wells)의 비데 ‘스파원’

일상의 공간을 작품처럼… 가구로 완성한 전시 공간

현대리바트

하정우 작가 공간 연출

거실·다이닝·서재에 가구 29종 배치
출시 전 소파·티테이블도 첫 공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리바트가 10월4일까지 서울 강남구 더샵갤러리에서 열리는 배우 겸 화가인 하정우 작가 개인전 ‘Either act or forget’의 전시 공간 연출을 통해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간다.

21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더샵 갤러리는 2023년 9월 연 포스코이앤씨의 복합문화공간이다.

현대리바트는 하정우 작가의 전시 주제에 맞춰 현대인들의 익숙한 삶의 공간과 일상의 단편적인 공간을 시각화하고, 전시된 작품들과 함께 전시장 전체를 또 다른 거대한 작품 속의 공간처럼 관람객이 느낄 수 있도록 더샵갤러리와 협업해 전시 공간을 연출했다.

현대리바트는 전시 공간을 ‘거실 공간’, ‘다이닝 공간’, ‘서재 공간’으로 나눠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총 29종의 가구 및 소품을 배치했다.

거실 공간을 구성하는 ‘스위치 소파(가칭)’와 ‘프레임 티테이블(가칭)’은 특유의 포근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관람객이 편안하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두 제품은 정식 출시 전 이번 전시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한다.

다이닝 공간은 북미산 참나무를 사용해 깊은 결감과 온기를 살린 ‘오토밀’ 식탁과 의자를 배치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리바트 공방’ 소품을 곳곳에 배치해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리바트 공방은 현대리바트 공식 온라인몰 ‘리바트몰’의 전문관이다.



하정우 작가의 개인전 ‘Either act or forget’의 전시 공간.

포근한 헤드보드·천연 소재… 휴식의 품격 높은 침실

에몬스

호텔형 침대 네이든

세로 패턴으로 볼륨감 있는 공간 연출
구리 도금 스프링으로 위생 기능 강화

에몬스가 수면을 통해 삶의 리듬을 되찾고 감정을 정돈하는 공간으로 침실을 정의하고 물리적 휴식과 감성적 만족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침실 컬렉션을 선보였다.

21일 에몬스에 따르면 신제품 ‘네이든’ 호텔형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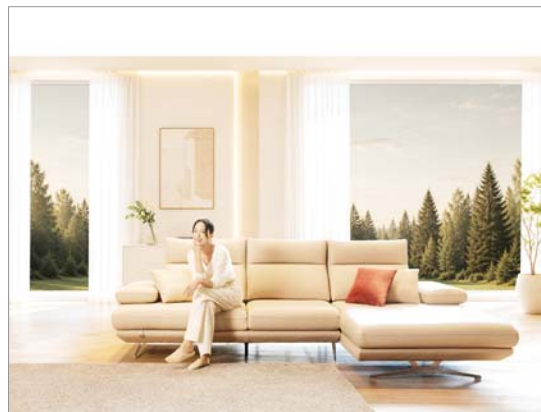
대는 리듬감 있는 세로 패턴과 은은한 입체감이 공간을 볼륨감 있게 연출한다. 쿠션형 헤드보드를 적용해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처럼 기존 호텔형 침대와 차별화 된 디테일을 통해 호텔에서 경험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집 안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경험을 제공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구현한 ‘타임리스 컴포트 슬립(Timeless Comfort Sleep)’ 콘셉트의 하이엔드 매트리스 3종도 출시했다. 매트리스 라인업은 스프링의 품질력 강화와 소재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2.2mm 두

께의 고강도 강선으로 구성된 울트라 EX 스프링은

우수한 지지력과 내구성을 제공하며, 항균·소취 기능의 구리 도금을 더해 위생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에몬스는 이 스프링 구조에 대해 최대 15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

내장재는 호스텔, 양모, 알파카 울 등 최고급 천연 소재를 사용해 매트리스 내부의 공기 순환과 습도 조절이 용이하도록 설계했으며, 피부에 직접 닿는 외장재는 벨기에 피터스(Pieters)사의 비스코스 원단을 적용해 실크처럼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을 구현했다.



에몬스 전속모델 배우 전도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아한 곡선부터 월 스타일 헤드보드… 침실에 품격 더해

에이스침대

세미클래식 침대 탱고

곡선·웨인스코팅으로 품격 높여
청소·충전 편의 더해 실용성 강화

에이스침대가 출시한 신제품 ‘탱고(TANGO)’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세미클래식 침대다. 유려한 곡선의 실루엣이 침실에 우아한 분위기를 더하는 탱고는 킹(K)과 라지킹(LK) 두 가지가 있다.

컬러는 개성이 돋보이는 ‘블랙’과 ‘버건디’ 두 가지 유광 컬러로 출시해 고객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하이글로시 몰딩에 클래식한 하운드투스 패턴의 패브릭을 조합해 소재의 대비를 살렸다. 이와 함께 실용성과 편안함까지 놓치지 않았다. 프레임 하부에 약 130mm의 공간을 마련해 일반 로봇청소기가 침대 아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매트리스에 전달되는 하중과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에이스침대의 ‘투 매트리스(Two Mattress) 시스템’을 적용해 안정적인 지지력과 안락한 착와감을 구현했다.

또다른 제품인 ‘리네아-II(LINEA-II)’는 웨인스코팅 디자인과 화사한 도브 화이트 컬러의 조화가 돋보이는 신혼 침대다. 침실 벽면을 장식한 듯 웅장하게 펼쳐지는 월(Wall) 스타일 헤드보드에 정교한 몰딩 디테일을 더해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침대에서 휴식은 물론 독서, 스마트기기 사용 등 다양한 시간을 보내는 요즘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도 반영했다. 헤드보드에 멀티콘센트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으며,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팟 조명을 더해 독서나 휴식 등 필요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에이스침대의 신제품 ‘탱고’

두 배 큰 얼음으로 더 시원하게… 사계절 내내 청량함 가득

SK매직

MEGA ICE 얼음정수기

하루 제빙량 5.7kg·대용량 아이스룸 탑재
5중 위생케어 적용·iF 디자인상 수상

직수 정수기, 스테인리스 직수관 등 정수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온 헬스 플랫폼 브랜드 ‘SK매직’이 업계 최대 수준의 얼음 크기와 단단한 빙질로 사계절 얼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MEGA ICE 얼음정수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SK매직에 따르면 신제품은 얼음정수기의 본질인 ‘얼음의 질’에 집중한 제품으로 일반적인 얼음(약 11g) 대비 두 배 이상 큰 약 25g의 ‘메가 아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번의 출빙으로 대용량 컵을 가득 채울 수 있으며, 단단하고 투명한 빙질의 얼음이 쉽게 녹지 않아 음료 및 음식 본연의 맛과 풍미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다.

또, 하루 제빙량은 5.7kg(메가 모드 설정 시)에 이르고 1.1Kg의 대용량 아이스룸을 탑재해 여름철에도 넉넉한 얼음을 사용할 수 있다.

위생 측면에선 오염과 부식에 강한 ‘올(ALL) 스테인리스 직수관’을 모든 유로에 적용했으며 ▲아이스룸 트리플 UV케어 ▲출빙부 및 코크 UV 케어 ▲직수관 전해수 케어 ▲유로 순환 케어 등 ‘5중 안심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빈틈 없는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아이스룸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 얼음정수기 위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명한 얼음을 형상화한 ‘레이어 디자인’으로 심미적 완성도를 높여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상(2026)’을 수상했다.



SK매직 ‘MEGA ICE 얼음정수기’와 모델 변우석.



유통업계
인니 할랄시장
공략 나서
L1

metro®

Life

현대차
모터스튜디오
영화로 담았다
L2



이동은 편하게, 터전은 푸르게... 철도·방산의 따뜻한 변신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철도·방산 등 본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사회문제 해결로 확장하고 있다. 열차를 만들며 쌓은 이동에 대한 경험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방산기업의 정체성은 참전 용사 지원에 접목하는 식이다. 환경 분야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직접 복원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단계로 사회공헌의 범위를 넓혔다.

이를 관통하는 개념은 '수호'다. 현대로템은 사회공헌 체계를 인류·환경·공동체를 지키는 세 축으로 구성했다. 운영체계와 투자도 확대했다. 대표이사 산하 사회공헌(CSR)운영위원회가 전략을 수립하고 본사와의 왕·당진·창원 사업장의 35개 봉사단이 지역별 사업을 수행한다. 지난해 사회공헌 투입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2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1147명이 5159시간 동안 활동에 참여했고 수혜 인원은 1만2008명이다. 현대로템은 오는 2029~2030년 국내외 CSR 거버넌스를 완성하고 사회공헌 투입비용을 매출액의 0.1%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열차 만들던 경험으로 교통약자 이동시간 줄인다

철도사업에서 쌓은 이동에 대한 경험은 교통약자가 혼자서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서울시·서울교통공사·사단법인 무의와 함께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교통약자 환승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모두의 지하철'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환승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연결형 안내표지'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어디에서 길을 잃거나 멈추는지 파악한 뒤 안내표지의 위치와 디자인에 반영했다.

효과는 이동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역·시정역 등 주요 환승역 10곳에 개선된 안내체계를 적용한 결과 길 찾기 시간은 평균 6분25초 단축됐다. 이용자의 86.7%는 지하철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올해는 적용 대상을 서울 시내 25개 역, 50개 역사로 확대한다. 서울시 표준 가이드라인 반영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우동우 현대로템비즈니스지원팀 매니저는 "지문위판단 운영과 심층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주요 불편 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안내체계에 반영한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말했다.

◆환경정화 넘어 생태복원...되살아난 습지까지 추적

환경 분야의 사회공헌은 쓰레기를 줍고 나



1 현대로템은 교통약자 환승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모두의 지하철'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휠체어 이용자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왼쪽부터),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 원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해 7월 의왕시청에서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가 지난 6월 4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분향하고 있다. /현대로템



교통약자 위한 환승 안내체계 개선 휠체어 이동 동선 원활하게 안내해 서울 25개 역·50개 역사 적용 확대

생태계 복원 '블루리본 프로젝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공간 조성 임직원 환경정화 활동 '두발로데이'

저소득층 의료비·생활물품 등 지원 국가유공자에 '이동용 스쿠터' 전달 해외 참전용사·유가족 주택 보수도



무를 심는 활동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후 변화를 확인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사업인 '블루리본' 프로젝트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되살리고 이를 환경교육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의왕시·환경단체 등과 협력해 의왕시 포일동의 훼손된 습지를 정비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습지 인근에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생태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복원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맹꽁이를 비롯한 주요 생물종의 실제 서식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해 생태계 회복 정도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생태학습장은 인근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포일습지에서 복원 기념 식목과 쓰레기 수거 활동도 진행했다.

창원공장 인근에서는 맹꽁이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서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의왕에서는 임직원들이 산책로와 하천변을 걸으며 환경을 정화하는 '두발로데이'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서 해외 사업국까지...지원 범위 확대

현대로템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취약 계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의왕에서 저소득층 의료비로 2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창원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명절 식사

와 생활용품, 폭염·한파 계절용품 등을 지원했다. 창원지역의 개별 지원사업은 향후 '생활안정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방산사업과 연계한 보훈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이동용 스쿠터를 지원하고, 상이군인 국제 스포츠대회인 '2025 캐나다 인빅터스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을 후원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임직원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역을 정화했다.

지원 대상은 해외 참전용사까지 넓어졌다. '히어로즈 홈'을 통해 6·25전쟁 해외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노후·피해 주택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는다. 첫 사업국인 튀르키예에서는 지난해 지원 대상 발굴과 주거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현지 실사와 설계를 토대로 재건 공사에 들어간다. 향후 태국·필리핀·에티오피아 등 다른 참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국에서는 현지 수요에 맞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보그엘아랍·몬타자 지역 난민 아동에게 학용품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폴란드에서는 방위사업청·국내 방산기업·카이스트(KAIST) 등과 현지 국방기술 인재의 국내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metroseoul.co.kr



metro



▲ '금 1·2호' 근대5종 성승민·전웅태 "일본 하늘에 태극기 걸어 영광"
▲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우승' 남자 농구 대표팀 금의환향 /사진 뉴스스

▲ 종합격투기 이보미, 여자 54kg급 동메달 획득...종목 韓 첫 메달
▲ '대회 신기록' 김영범, 자유형 50m 전체 1위로 결승행...'2연패 도전' 지유찬 3위

▲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 모레노호 소집 전 포르투서 데뷔골
▲ 다시 뛰는 한국 축구...모레노호 오늘 '첫 소집', 태극전사 품 '정점'

세상이 무너질 듯한 시간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시간도
흘러가는 법

비난을 받는 일상도
칭찬을 받는 일상도
흘러가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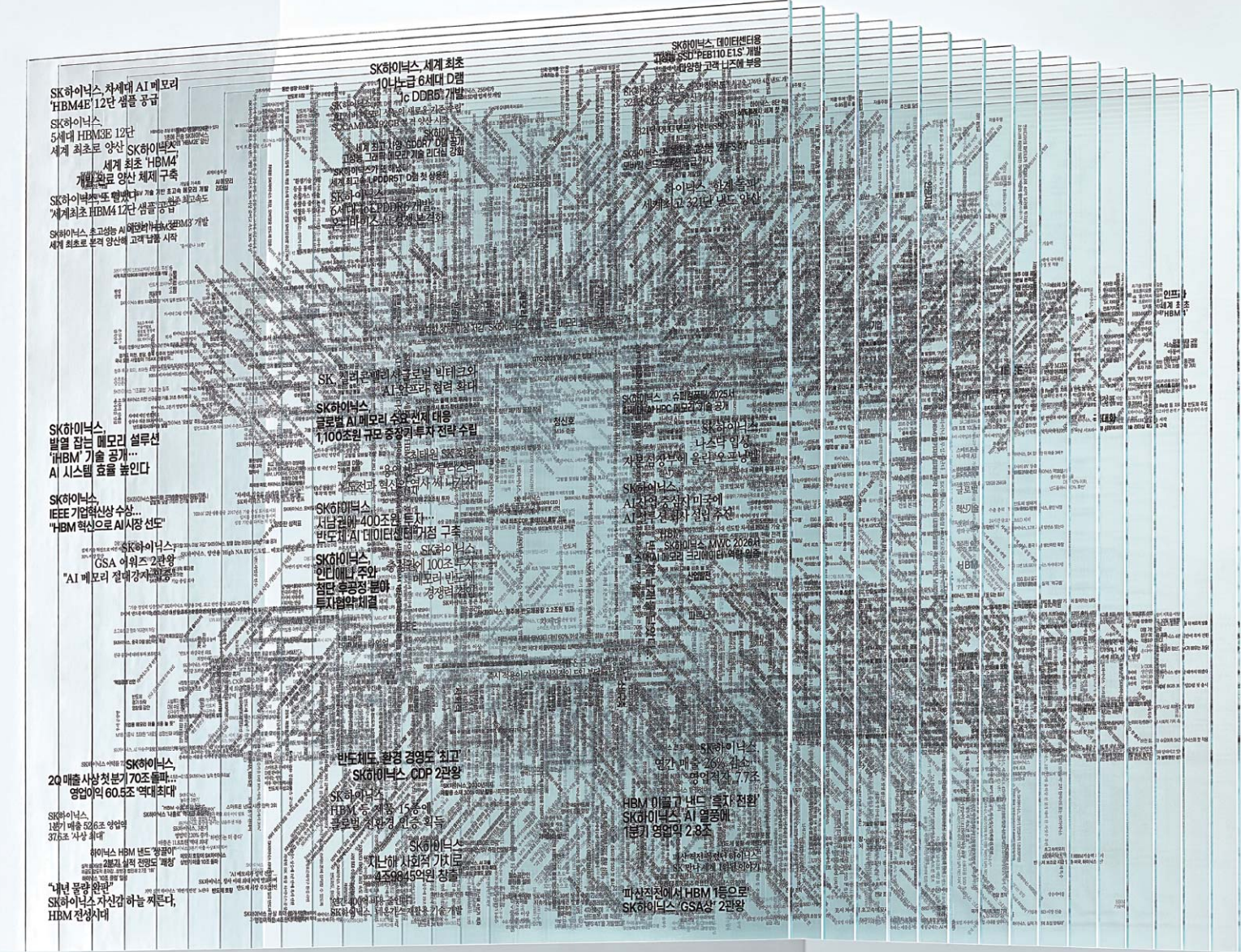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나날도
누구나 올려다보는 나날도
흘러가는 법

노력이 빛을 바라는 순간도
행운이 빛을 발하는 순간도
흘러가는 법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어떤 자세

“겸손하게 충실하게”

SK hynix



이 광고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